

(財)嘉耕考古學研究所 文化遺蹟 調查報告 第2輯

京釜高速鐵道 大田都心(2次) 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試掘)調查

# 大田 板岩洞 물방아골遺蹟

金 珍 泰  
姜 秉 賢

2011



嘉耕考古學研究所  
Gakyung Institute for Archaeology



## 일러두기

- 1 本 報告書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뢰로 실시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2차)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다.
- 2 圖面의 방위는 조사 당시의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 3 遺構 立·斷面·土層圖에 표기된 수치는 海拔高度를 나타낸다.
- 4 遺構 平面圖의 縮小比는 1/80을 기본으로 하였다.
- 5 遺物 實測圖의 縮小比는 土器 1/3, 石器 1/2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예외의 경우 도면에 해당 축 소비를 표기하였다.
- 6 遺構의 길이 및 너비는 바닥에 접한 벽선을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 7 遺構의 면적은 Auto CAD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원색사진 1】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전경(항공촬영-북서에서)



【원색사진 2】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조사前 전경(북에서)



【원색사진 3】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전경(항공촬영-남서에서)



【원색사진 4】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트렌치 배치 현황(수직촬영)



【원색사진 5】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일괄



# 目次

I. 調査概要	1
II. 調査地域の環境	3
1. 大田의 自然地理的 環境	3
2. 遺蹟의 立地	6
3. 大田의 歷史·考古學的 環境	8
III. 調査方法과 堆積様相	20
1. 調査範圍와 方法	20
2. 堆積様相	23
IV. 調査内容	25
1. 조사지역 서쪽지점(Tr.1~8)	25
2. 조사지역 중앙지점(Tr.9~16)	26
3. 조사지역 동쪽지점(Tr.17~25)	27
1) 靑銅器時代	28
(1) 1號 住居址	28
(2) 2號 住居址	30
V. 調査成果	46
1. 板岩洞一圓의 地理的 背景	46
2. 板岩洞 물방아골의 靑銅器時代 住居址	48





## 圖面 目次

도면 1. 대전광역시의 행정지리적 위치	3
도면 2. 대전광역시 일원의 주요 산지분포	4
도면 3. 대전광역시의 주요 수계 분포	5
도면 4.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 및 고도 분포	6
도면 5. 조사지역 주변의 지질 분포	7
도면 6. 조사지역 주변의 토양모재 분포	7
도면 7. 근대 지형도 상의 조사지역 주변 지형과 수계 분포	7
도면 8. 대전 일원의 산성 분포	14
도면 9. 廣輿圖(左)와 1872年 地方地圖(右)에 표현된 懷德縣 일원	16
도면 10.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유적 분포도(S=1/25,000)	18
도면 11.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 및 유구 분포도(S=1/2,000)	21
도면 12. 조사지역 내 지점구분 및 지형상황(S=1/2,000)	22
도면 13. 조사지역 층위 매트릭스	23
도면 14. 조사지역 동쪽지점의 트렌치 배치 및 유구배치도(S=1/1,000)	27
도면 15.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및 토층도	29
도면 16.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및 토층도	37



## 圖版 目次

원색사진 1.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전경(항공촬영-북서에서)	i
원색사진 2.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조사前 전경(북에서)	i
원색사진 3.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전경(항공촬영-남서에서)	ii
원색사진 4.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트렌치 배치 현황(수직촬영)	ii
원색사진 5.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일괄	iii
사진 1. 조사지역 서쪽지점 전경(북서에서)	25
사진 2. 조사지역 중앙지점 전경(북서에서) 및 Tr.9 토층도	26
사진 3.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사진 일괄	28
사진 4.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사진 일괄	36



# I . 調查概要

본 大田 板岩洞 물방아골遺蹟 報告書는 大田廣域市 東區 板岩洞 113-3번지(답) 외 28필지 일원의 시굴조사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이다. 韓國鐵道施設公團은 京釜高速鐵道 第6-3工區 路盤施設 및 其他工事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大田都心區間(2次)은 대전 시 동구 오정동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삼척리까지 총 연장 18,639km이며, 금번 조사가 이루어진 구간은 전체구간 중 157km+080부터 157km+490 지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시굴조사지역의 범위는 길이 410m, 면적 12,582㎡에 해당한다. 시굴조사 범위 중 유구가 확인되어 수습조사가 이루어진 범위는 WGS84 經緯度座標의 度分秒(DMS) 변환좌표로 經度 127° 28′ 9.553″ ~ 127° 28′ 12.474″, 緯度 37° 13′ 0.755″ ~ 37° 12′ 58.748″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최근까지 포도 등 특용작물 재배 및 경작지 등의 조성으로 인해 계단식 지표 변형 및 삭토 등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발굴조사된 주변유적으로서 大田 加午洞遺蹟<sup>1)</sup>의 존재로, 금번 조사대상지역 역시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일찍이 예상되었다.

금번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調查經過 및 調查目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번 조사 이전 해당지역에 대한 考古學的 調查로서는 2005년도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에서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地表調査는 韓國鐵道施設公團의 京釜高速鐵道 大田都心 建設工事 계획에 따른 것으로, 靑銅器時代 無文土器片과 石器 등을 포함한 高麗~朝鮮時代의 유물들이 71,652㎡ 범위에 걸쳐 확인되면서 第2地域 遺物散布地<sup>2)</sup>로命名하여 유물산포범위를 구획하였다<sup>2)</sup>.

文化財 地表調査의 결과에 따라 韓國鐵道施設公團에서는 文化財廳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09-604호)를 받은 후 嘉耕考古學研究所에 試掘調査를 의뢰해 옴에 따라 2009년 8월 17일부터 동년 9월 4일까지 총 조사기간 13일간의 일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면적은 12,582㎡이다. 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先史~歷史時代에 걸친 유물들이 지표 및 상부 퇴적토 상에서 散見되었으나, 조사지역 대부분의 범위에서 뚜렷한 유적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19번 트렌치상에서 靑銅器時代 住居址 1기가 확인되었다.

1) 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大田 加午洞遺蹟』.

2)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韓國鐵道施設公團, 2005, 『京釜高速鐵道 大田都心 建設區間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이에 시굴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방향과 유적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8월 31일 現場說明會 및 指導委員會議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확인된 遺構의 수가 극히 적은 상황이므로 발굴조사로 전환하기 보다는 시굴조사 기간 내에 확장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자료취득을 하여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住居址 1기가 확인된 주변지역의 약 297.74㎡ 범위에 대해 확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수습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표면제토를 통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靑銅器時代 住居址 1기가 더 확인되어 총 2기의 靑銅器時代 住居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大田 板岩洞 물방아골遺蹟의 시굴 및 수습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調查團을 구성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調查團長 · 責任調查員 吳奎珍(嘉耕考古學研究所長)

調 查 員 金珍泰(嘉耕考古學研究所 研究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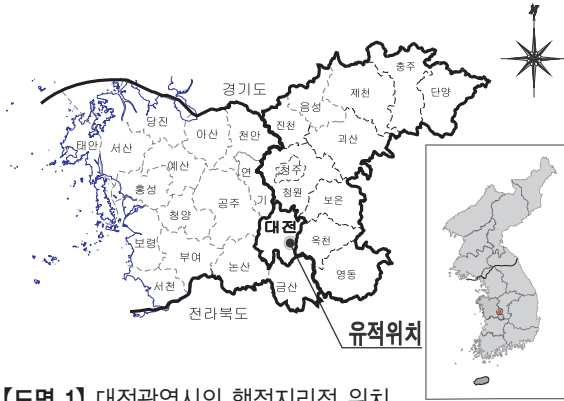
(※ 조사당시의 소속과 직명임)

금번 大田 板岩洞 물방아골遺蹟 조사보고서의 I · II장은 姜秉賢이, III · IV장은 姜秉賢, 金珍泰가 공동 작성하였으며 V장은 金珍泰가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 실측 및 전자도면 작업은 張英美(嘉耕考古學研究所 研究員)를 비롯한 김효정 · 문정원 · 오경미 · 임채선 · 한아름(嘉耕考古學研究所 研究員)의 노력이 있었으며, 유물사진은 오세윤이 촬영하였다. 이를 李旼燮(嘉耕考古學研究所 部長)이 修訂 · 補完하였고 전체 보고서 편집은 張英美가 담당하였으며, 최종적으로 吳奎珍이 教閱 · 監修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과정 중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셨던 지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현장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韓國鐵道施設公團 監督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노고에 감사드린다.

## II. 調查地域의 環境

### 1. 大田의 自然地理的 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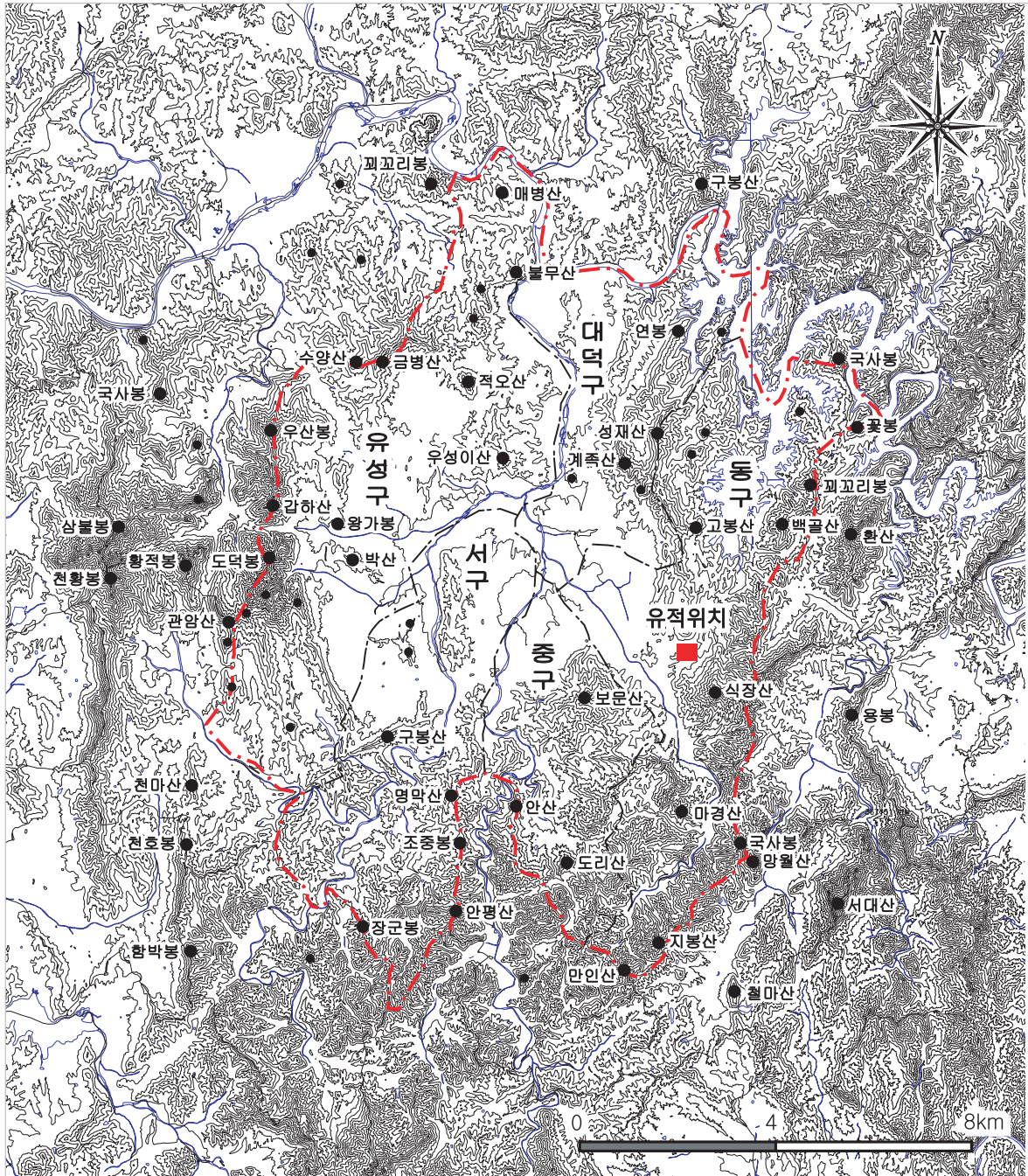


【도면 1】 대전광역시의 행정지리적 위치

大田廣域市는 東經 127° 14' ~ 127° 33', 北緯 36° 29'에 위치하고 면적은 539.84km<sup>2</sup>로서 충청남도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청원군·충청남도 연기군,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와 접하고 있다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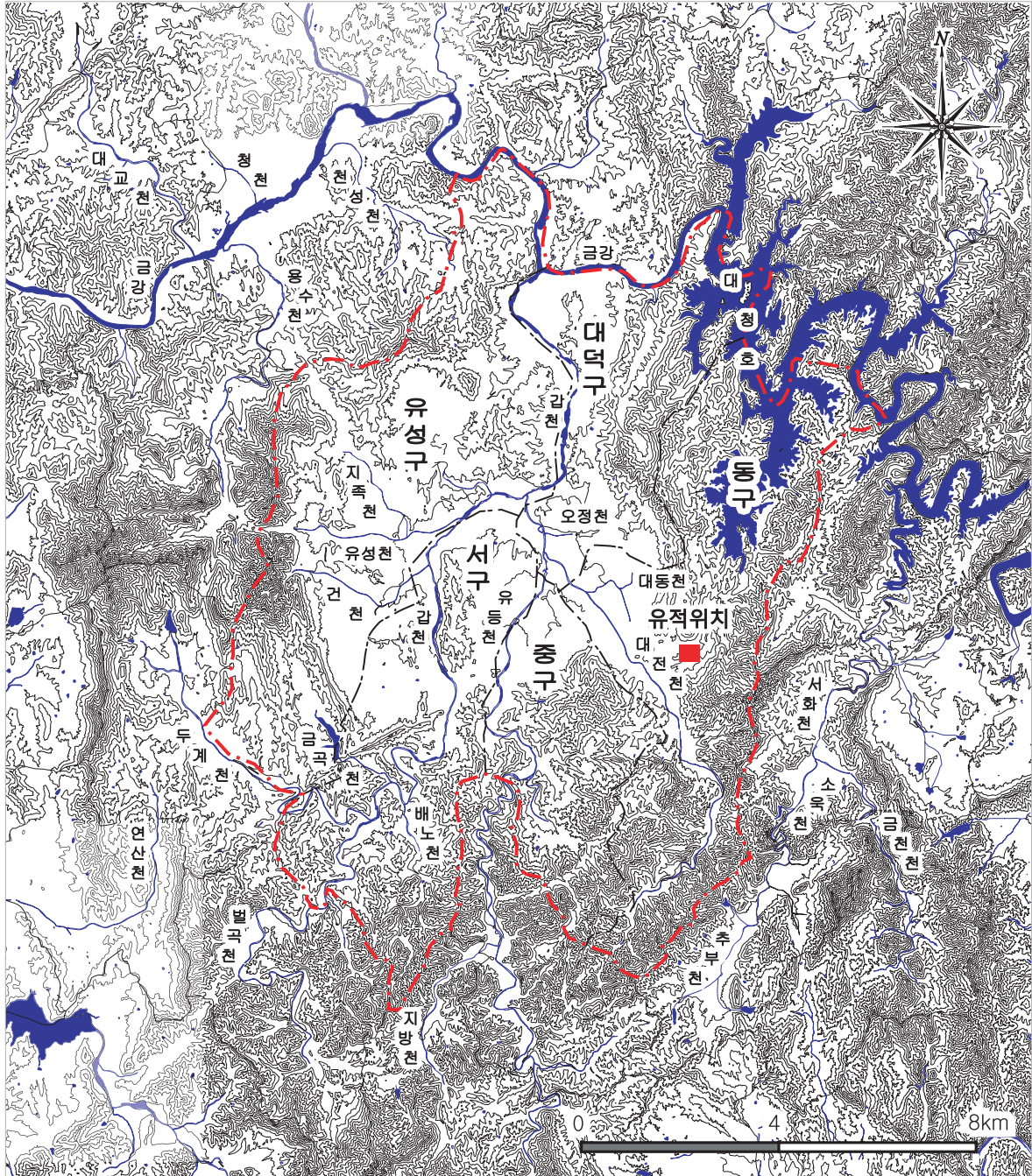
조사지역이 위치해 있는 대전광역시는 차령산맥 아래 노령산맥 북서쪽의 화강암 대지와 충적층으

로 형성된 산간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錦江水系의 甲川, 柳等川, 大田川 등 여러 금강 支流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된 침식분지로서, 분지 주변으로는 해발 60~100m 내외의 산록완사면이 위치해 있고, 대전광역시의 행정경계를 따라 해발 300~500m의 높은 산악지형이 발달해 있다(도면 2). 즉, 東南界는 函角山(314.5m), 개머리산(365m), 鷄足山(398.7m), 古鳳山(309m), 食藏山(597.5m), 安平山(470.2m), 將軍峯(268.2m) 등 계족산과 식장산을 중심으로 산악지형을 이루고 西南界는 雨率山(538.3m), 道德峯(389.5m), 冠岩山(525m), 白雲峰(125.5m) 등 大屯山(877.7m)에서 우산봉을 거쳐 이어지는 鷄龍山을 중심으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北界로는 고봉산(304m), 응봉산(320m) 등 다른 곳에 비해 낮으나 북쪽지역에서는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주변 일원의 지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대전 동남부지역의 경우 규암석층과 옥천층군에 속하는 변성암류가 대부분 분포해 있어 산악지형을 이루고 서남부지역은 맥암류와 반암류가 기반 지질을 형성하고 있어 역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남쪽지역은 반암류로서 九峰山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방향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화강암류가 대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오랜 기간동안 차별침식과 풍화에 의해 낮은 충적지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침식되면서 분지내 普門山(457m), 馬鏡山(379m) 등의 불규칙적인 산릉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도면 2】 대전광역시 일원의 주요 산지분포

대전지역의 河系密度는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錦江 水系 유역내의 기반암이 주로 풍화에 대한 저항도가 크지 않은 화강암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도면 3). 대둔산에서 발원한 甲川은 지류인 배노천, 두계천, 유성천 등이 합류하면서 西區를 가로 지르며 북쪽으로 흐르다가, 삼천동에서 柳等川과 합류한다. 또한 大田川은 東區를 가로지르면서 대동천 등의 지류가 합류되며, 북쪽으로 흐르다가 오정동 일원에서 유등천에 합류되고 있다. 유등천은 보문산 서쪽과 남쪽의 계류들이 사정동을 지나 뿌리공원 부근에서 유등천에 합류하면서 流勢가 커진 후 오정동 주변에서 대전천과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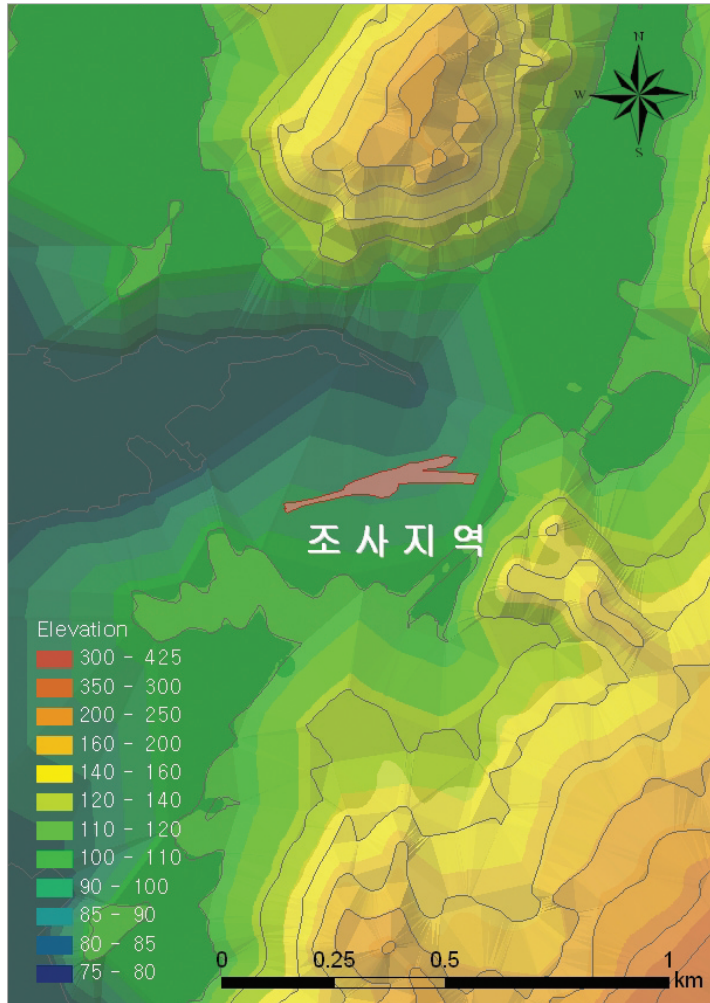


【도면 3】 대전광역시의 주요 수계 분포

류한 후 갑천에 이른다. 이렇게 유등천, 대전천 및 두계천 등이 합류하여 형성된 갑천은 노루벌 부근에서 전형적인 蛇行河川의 형태로 흘러간다.

대전지역의 기후는 내륙분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은 12.8℃이며, 1월 평균기온은 -3℃이고, 8월의 평균기온은 26.9℃로 연교차는 30℃에 이른다. 연평균 강수량은 1,105mm이며, 55~65%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서리는 10월 하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 초순까지 이어진다.

## 2. 遺蹟의 立地



【도면 4】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 및 고도 분포

板岩洞 물방아골遺蹟이 위치한 지점은 大田廣域市 東區로서 행정경계상 中區에 인접한 지점이다. 북쪽으로는 三丁洞山城이 있는 微高地가 위치해 있는데, 鷄足山에서 발원하여 원주산을 거친 후 남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산지 말단부에 해당하며, 해발고도상 200~250m 정도로 말단부이지만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도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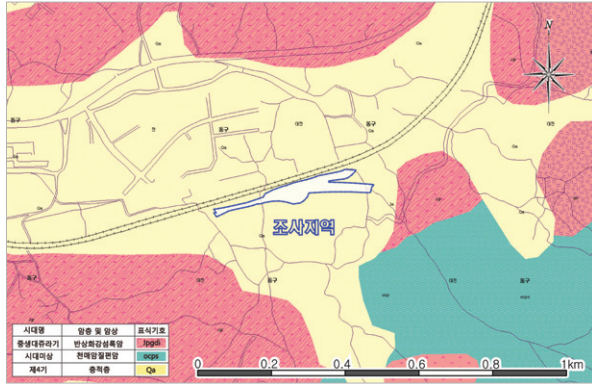
남남동쪽으로는 대체로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해 있는 식장산의 산록완사면이 크게 발달해 있는데, 조사지역은 이 산록완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大田川을 사이에 두고 竇文山이 위치해 있다.

대전 東南界의 地質이 대부분 규암석층과 옥천층군에 속하는 變成巖類가 분포해 있어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북쪽 원주산 줄기의 미고지 주변과 남쪽 食藏山 산록완사면 주변으로 중생대 쥬라기의 반상화강섬록암(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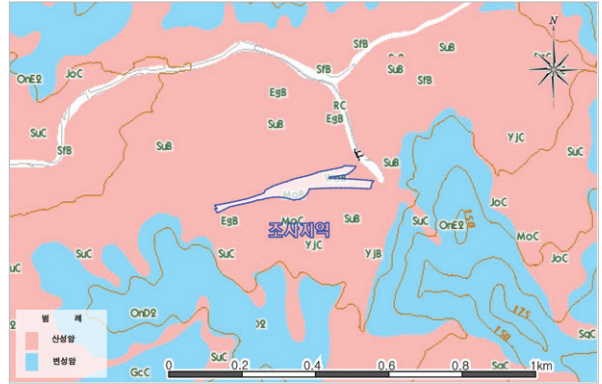
식기호 Jpgdi)이 발달해 있고, 식장산 일원의 부분적으로는 시대미상의 천매암질편암(표식기호 ocps)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을 포함한 곡부일원으로는 제4기 충적층(표식기호 Qa)이 발달해 있다(도면 5).

한편, 지질 분포에 기반한 土壤母材의 분포는 북쪽의 미고지와 남쪽의 식장산 일원에 부분적으로 변성암이 분포한 반면, 조사지역을 포함한 곡부 주변일원으로는 산성암이 분포해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도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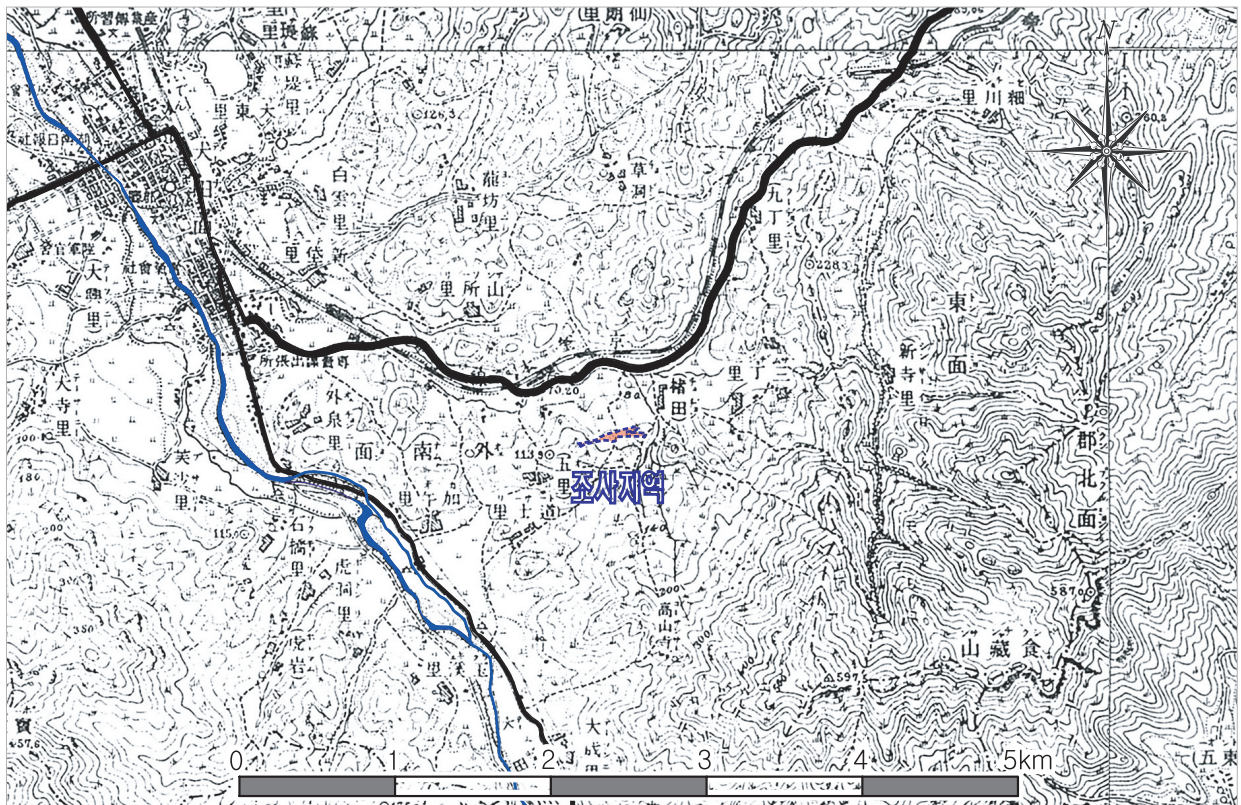
이 산성암 주변과 유사하게 충적지대가 발달해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재의 지형 상황은 근대지형도를 통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심한 지형변화나 지형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면 7).



【도면 5】 조사지역 주변의 지질 분포



【도면 6】 조사지역 주변의 토양모재 분포



【도면 7】 근대 지형도 상의 조사지역 주변 지형과 수계 분포

즉, 보문산과 식장산 사이를 북쪽으로 흐르는 대전천은 현재 하상공사를 통해 비교적 직선화된 양상과는 달리 곡저부를 따라 사행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변으로 자연 제방과 충적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조사지역이 위치한 곡부지형 속에서는 북쪽의 미고지쪽으로 치우쳐 대전천의 소지류가 지형을 따라 완만하게 곡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유적이 입지한 사면의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서쪽에 위치한 가오동유적의 경우 서향사면으로서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된 바 있으며, 백제연구소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도 본 조사지역 일원에서 무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던 점 등은 선사시대인들이 주요 하천의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사지역과 같이 소지류 주변의 완사면상에도 분포하는 취락 입지상의 특징을 보인다 하겠다.

그러나 가오동유적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微細地形으로서 조사지역은 가오동유적이 위치한 구릉 완사면에 비해 완사면내 잔곡부가 발달해 있으며, 원지형상에서는 조사지역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산록완사면 구릉부 사이의 곡부지형 내에 발달한 선상지형태를 띠고 있다. 선상지의 경우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드는 상부와 다시湧出되는 하부일원은 居住地로서 입지가 좋다 할 수 있지만, 본 지형은 선상지형태의 완사면 형태를 띠었을 뿐, 대부분의 지표수가 물방아골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동쪽 계곡부로 방향을 달리하여 흐르게 되는 지형이다. 따라서 원만한 식수공급상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지형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금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靑銅器時代 住居地는 조사지역 중 물방아골 마을에 인접한 완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지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특히, 경부선의 북쪽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원지형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부선을 경계로 식장산 방향의 남쪽지역은 물방아골 마을 등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근대 지형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1910년대에 보이는 소로길들에 대한 일부 개량공사 등이 이루어졌을 뿐, 지형 훼손이 지표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 3. 大田의 歷史·考古學的 環境

대전광역시의 舊石器時代 유적은 屯山洞遺蹟<sup>3)</sup>에서 後期 舊石器時代의 찍개, 굽개, 새기개 등의 석기들이 출토되면서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여, 九則洞<sup>4)</sup>, 新垆洞<sup>5)</sup>, 龍山洞遺蹟群<sup>6)</sup>, 老隱洞<sup>7)</sup>, 大井洞<sup>8)</sup>, 龍湖洞<sup>9)</sup>, 秋洞遺蹟<sup>10)</sup> 등이 발굴조사되면서 대전분지 일

3) 손보기 외 1995, 「舊石器時代 遺蹟調查」, 『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4) 배기동 외 1992, 『구죽동 구석기유적 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5) 성정용 1997, 「大田 新垆洞?比來洞 靑銅器時代遺蹟」, 『湖西考古學的 諸問題』 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韓國考古學會.

6) 성정용 외 2002, 『龍山洞』, 忠南大學校博物館.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대전 용산동 구석기유적』 현장설명회자료.

7) 한창균 외 2003, 『대전 노은동 유적-대전 월드컵 경기장 건립지역』,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8) 이홍중 외 2002, 『大井洞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9) 한남대학교박물관 2001, 『대전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지역내 구석기유적(용호동) 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10) ① 김근완·서대원 2003, 「대청호 수몰지역의 신발견 유적과 유물」, 『고고와 민속』 6,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②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대청호 접안지역내 대전 추중(하추·성피)유적』.

1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1, 『대전 석봉정수장 건설사업 지역의 구석기유적(용호동) 3차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자료』.



원에 넓게 舊石器時代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인간 활동의 흔적은 대덕구 龍湖洞 舊石器遺蹟<sup>11)</sup>에서 찾아졌다. 용호동유적에서는 모두 4개의 文化層이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10만년전의 구석기시대 중기부터 1.5~1만년전의 후기까지 층을 이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토된 석기는 석영, 규질암, 혼펠스 등을 돌감으로 이용하였으며, 모두 2,500여점이 넘는 많은 양이 출토되어 錦江流域의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는다. 이외 세천동 3지점<sup>12)</sup>, 신하동 선·역사산포지<sup>13)</sup>, 신하동 선사유적 산포지<sup>14)</sup>, 직동 독바위유적<sup>15)</sup>, 평촌동 석기출토지<sup>16)</sup> 등 구석기 유물이 지표수습된 유물산포유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구석기시대에 이미 대전분지 일원이 생활을 여위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新石器時代 유적으로는 屯山洞遺蹟<sup>17)</sup>이 대표적으로 圓形豎穴遺構 13기가 조사되었으며, 橫走魚骨文, 集斜線文, 短斜線文 등 다양한 문양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錦江式土器로 불리는 菱形押印文土器의 문양 비중이 높은 편이다. 老隱洞遺蹟에서는 소형의 豎穴遺構 1기가 조사되었고 橫走魚骨文土器가 출토된 바 있고, 구성동, 송촌동<sup>18)</sup>, 상서동유적군<sup>19)</sup>, 월평동<sup>20)</sup>, 유성구 교촌지구<sup>21)</sup> 등지에서도 신석기시대 유물이 확인된 바 있는데, 송촌동유적에서는 평면 圓形의 소형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수혈은 직경 280cm, 깊이 50cm이었으며, 수혈 내부에서 橫走魚骨紋과 菱形紋 계통의 문양이 시문된 빗살문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수혈은 대전광역시 서구 屯山洞의 屯山 先史遺蹟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외 구성동 유물산포지<sup>22)</sup> 등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갑천 주변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된 분지 내 낮은 구릉지형에 입지해 있는 양상으로서, 구석기시대 이래로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도 대전 분지 일원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靑銅器時代에 들어와서는 보다 다양하고 수량적으로 풍부하게 유적들이 조사되고 있는데, 주로 生活遺蹟과 墳墓遺蹟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12) 김근완·서대원 2003, 「대청호 수몰지역의 신발견 유적과 유물」, 『고고와 민속』6,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 13) 김근완·서대원 2003, 註 11의 글.
- 14) 김근완·서대원 2003, 註 11의 글.
- 15) 이용조 1980, 「대청댐 수몰지역의 구석기유물-만들기와 쓰기의 복원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28, 한국사연구회.
- 16) 대전광역시·충남대학교박물관·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2004, 『문화유적 분포지도-대전』.
- 17) 이강승 외 1995, 「新石器·靑銅器時代 遺蹟調査」, 『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 18) 충남대학교박물관 1996, 「경부고속도로 회덕-증약간 확장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I」.
- 19) 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대전과학산업단지진입로 상서동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이강승 1995, 「금강유역의 선사문화 I -갑천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2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20) 박순발·이형원 1999, 「월평동 즐문토기 및 고구려토기 산포유적」, 『호서고고학보』1, 호서고고학회.
- 21) 한남대학교박물관 2001,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의 문화유적 조사연구」, 『고고와 민속』4.
- 22) 대전직할시 1992, 『문화유적 총람』.

生活遺蹟으로는 長方形 住居址와 圓形 住居址가 조사되고 있어 靑銅器時代 前期부터 後期에 이르는 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전분지가 생활무대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長方形 住居址가 확인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屯山洞, 龍山洞<sup>23)</sup>, 弓洞<sup>24)</sup>, 老隱洞<sup>25)</sup>, 官坪洞<sup>26)</sup>, 新垆洞, 관저동<sup>27)</sup>, 加午洞遺蹟<sup>28)</sup> 등이 있으며, 內部施設로서 圍石式爐址와 柱礎施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유물로는 二重口緣土器, 短斜線文土器, 孔列土器 등이 있다. 최근에 조사된 원신흥동 덜레기유적<sup>29)</sup>에서는 장방형 주거지와 원형 주거지가 함께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 장방형 주거지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10~9세기로 편년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중서부지방 가락동유형의 중심연대를 기원전 13~9세기로 편년하기도 한다. 松菊里形 住居址로도 불리는 圓形 住居址는 공동유적, 九城洞遺蹟<sup>30)</sup>, 大井洞遺蹟, 자운동유적<sup>31)</sup>, 가오동유적 등지에서 조사되었는데, 원형주거지의 특징인 바닥 중앙부의 圓形 竪穴과 양쪽 가장자리의 二柱孔이 설치되어 있고 松菊里形土器를 중심으로 한 口脣刻目土器가 출토되고 하며, 粘土帶土器가 공반되기도 한다.

靑銅器時代 墳墓遺蹟으로는 그 종류가 다양한 편으로서 支石墓, 石棺墓, 甕棺墓 등의 墓制型式이 확인되었다. 支石墓로서 대표적인 것은 대전 新垆洞遺蹟과 比來洞遺蹟으로서 신대동유적에서는 지석묘의 하부 매장주체부로 판단되는 石槨遺構 1기가 확인되었다. 紅陶, 石劍, 石鏃 등이 출토되었고, 비래동유적에서는 琵琶形銅劍, 紅陶, 曲玉, 石鏃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와동유적<sup>32)</sup>에서는 석검과 석촉이 출토된 바 있으며, 내동<sup>33)</sup>, 교촌동, 대정동<sup>34)</sup>, 관저동<sup>35)</sup>, 사성동<sup>36)</sup>, 송촌동<sup>37)</sup>, 추목동, 그리고 가오동유적 등에서도 지석묘가 조사된 바 있는데<sup>38)</sup>, 분지 내 전지역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 23) 성정용 외 2002, 『龍山洞』, 忠南大學校博物館.
- 24) 忠南大學校博物館 1999, 『大田 弓洞遺蹟 發掘調査』.
- 25) 忠南대학교 백제연구소 2004, 『대전 노은동유적』.
- 2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大田 官坪洞遺蹟』.
- 27) 백제문화재연구원 2008,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관저동) 문화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 2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大田 加午洞遺蹟』.
- 29)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대전 원신흥동 덜레기유적』.
- 30) 최병현 외 1997, 『대전 구성동유적』, 한남대학교박물관.
- 31) 김진태 2004, 『대전 자운동·추목동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 32) 이은창 1962, 「충남 대덕군내 선사유적조사」, 『고고미술』 3-8, 한국미술사학회.
- 33) 지건길 1977, 「대덕 내동리 지석묘유적 발굴개보」, 『백제연구』 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34) 이홍중 2002, 『大井洞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35) 심정보 외 1995, 『대전 관저(II) 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 36) 윤무병 1978, 「사성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 『대청댐수몰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박물관.
- 37) 이은창 2002, 『대전 송촌동유적』, 대전보건대학박물관.
- 38) 이은창 1963, 「호서지방의 선사유적조사」, 『고고미술』 4-8, 한국미술사학회.
- 39) 백제문화개발연구원 2008,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상대동-양촌) 문화유적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의자료.

띠고 있다. 石棺墓는 와동, 궁동, 상대동<sup>39)</sup>, 추목동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와동유적에서는 석검과 석촉이 출토되었고 궁동유적에서는 옹관묘가 인접하여 조사되기도 하였다. 甕棺墓로서는 최근 원신흥동 덜레기유적<sup>40)</sup>에서 옹관묘 2기가 조사되었다. 이외 탄방동과 문화동 등지에서 세형동검 등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는데<sup>41)</sup>, 현재 조사된 예보다 그 분포양상이나 밀집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게 한다. 특히 괴정동유적에서는 방패형동기를 비롯한 세형동검, 검과형동기, 다뉴조문경, 동령, 곡옥, 마제석촉 등 청동기시대의 중요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초기철기시대 유물인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이 공반되어 대전분지내에서 자연스럽게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42)</sup>. 한편 원신흥동 덜레기유적<sup>43)</sup>에서는 初期鐵器時代에 해당하는 長方形 竪穴遺構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평면형태로 볼 때, 住居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유물로는 斷面圓形의 粘土帶土器片, 組合式牛角形把手片, 無文土器片, 石鏃片 등이 공반되었다.

백제 이후의 기록과 변천과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백제 이전의 원삼국시대에 어떠한 政治體가 이 일대에 존재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현재의 대전 儒城과 鎭岑 일대에 馬韓의 小國 중 하나인 臣?國 또는 內卑離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原三國時代 유적으로는 生活遺蹟과 墳墓遺蹟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생활유적으로는 구성동<sup>44)</sup>, 오정동<sup>45)</sup>, 노은동<sup>46)</sup>, 용계동<sup>47)</sup>, 대정동유적<sup>48)</sup> 등이 있는데, 평면형태 方形 혹은 長方形 竪穴住居址로서 부뚜막시설, 爐址 등의 내부시설들이 확인되었으며, 圓低短頸壺, 格子打捺文, 深鉢形土器, 兩耳附壺, 硬質 圓低短頸壺 등의 유물들이 공반되었다. 특히, 용계동유적은 최근 대전 일원의 고고학적 성과로서 원삼국시대 대규모 聚落遺蹟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住居址 350여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 장방형의 竪穴住居址로 부뚜막시설이나 爐址施設 등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었고 圓低短頸壺, 格子打捺文 長卵形土器, 深鉢形土器, 兩耳附壺 등 다양한 유물들이 공반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노은동, 궁동유적 등이 대표적으로 특히, 궁동유적에서는 周溝土壙墓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적들은 대체로 3세기대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원신흥동 덜

40)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대전 원신흥동 덜레기유적』.

41) 성주탁 1974, 「대전지방 출토 청동제유물」, 『백제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42) 이은창 1967, 「대전시 괴정동출토 일괄유물 조사약보」, 『고고미술』 8-9, 한국미술사학회.

43)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대전 원신흥동 덜레기유적』.

44) 최병현 외 1997, 『대전 구성동유적』, 한남대학교박물관.

45) 최병현 외 1988, 『대전 오정동유적』, 한남대학교박물관.

46) 한창균 외 2003, 『대전 노은동 유적-대전 월드컵 경기장 건립지역』,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4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대전 용계동유적』 현장설명회자료.

48) 이홍중 2002, 『大井洞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레기유적<sup>49)</sup>에서는 土壙墓가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 細長方形의 單純土壙形으로 부장간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며, 硬質 圓低短頸壺와 軟質 圓低短頸壺가 북쪽 短壁에 定置된 채 출토되었다.

대전분지 일원에서 확인되는 三國時代 유적으로는 生活遺蹟, 墳墓遺蹟 그리고 關防遺蹟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생활유적으로는 구성동<sup>50)</sup>, 노은동<sup>51)</sup>, 오정동<sup>52)</sup>, 대정동<sup>53)</sup>, 궁동<sup>54)</sup>, 송촌동<sup>55)</sup>,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유적<sup>56)</sup> 등이 있는데, 이들 유적에서는 三足土器, 高杯 등 전형적인 백제토기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長卵形土器, 格子打捺文甕形土器 등이 출토되고 있다. 분묘유적으로는 土壙墓와 石室墳, 石槨墓 등이 조사되었다. 우선 토광묘가 조사된 유적으로는 송촌동, 구성동, 오정동, 용산동, 노은동유적 등지로서 圓低短頸壺, 有肩壺, 廣口壺, 無蓋高杯, 杷杯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특히 용산동유적에서는 百濟時代 周溝土壙墓가 조사된 바가 있다. 석실분으로는 궁동유적에서 대표적으로 조사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大形周溝가 埋葬主體部 주변을 감싸고 둘러져 있고 羨道, 排水施設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甁, 三足土器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石槨墓 및 石室墳이 함께 조사된 예로서는 원신흥동 덜레기유적<sup>57)</sup>에서 총 8기의 분묘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다시 橫穴式石室墳, 橫穴式石槨墓 및 豎穴式石槨墓로 세분된다. 횡혈식석실묘인 7·8號 石室墓는 周溝가 달려 있으며, 편평한 板石材를 사용하여 종방향으로 중앙부에 敷石한 후 주변의 빈공간을 잡석으로 채워넣고 있으며, 단면 半圓形豆의 棺釘, 圓板形坐板의 관고리, 銅製細鑲耳飾 등이 출토되었는데 부장유물의 출토양상이 빈약한 편이다. 횡구식석곽묘는 부석이 거칠게 되어 있으며, 金銅製細鑲耳飾, 半圓形豆의 棺釘들이 출토되었다. 수혈식석곽묘에서는 뚜렷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고 관정들만이 출토되었으며, 단순 굴광한 후 정제되지 않은 석재들을 사용하여 석곽을 축조하였다. 한편, 生産遺構로서 원신흥동 덜레기유적에서는 가마가 1기 확인되었다. 가마는 반지하식 白炭窯로서 前面作業場과 側口部, 燒成部 및 煙筒部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삼국시대 대전일원은 백제 때 雨述郡이라 하였는데, 百濟가 高句麗의 南侵을 피해 漢城에서 熊津으로 遷都하면서부터 대전지역은 新羅와 國경을 이루는 백제의 戰略的

49)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대전 원신흥동 덜레기유적』.

50) 최병현 외 1997, 『대전 구성동유적』, 한남대학교박물관.

51) 한창균 외 2003, 『대전 노은동 유적-대전 월드컵 경기장 건립지역』,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52) 최병현 외 1988, 『대전 오정동유적』, 한남대학교박물관.

53) 이흥종 2002, 『大井洞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54) 忠南大學校博物館 1999, 『大田 弓洞遺蹟 發掘調査』.

55) 이은창 2002, 『대전 송촌동유적』, 대전보건대학박물관.

56) 한남대학교박물관 1993, 『대전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조성부지내 선사유적 시굴조사 약 보고서』.

57)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대전 원신흥동 덜레기유적』.

要衝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문헌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雜志 地理3의 熊州條의 기록을 보면,

比豊郡 本百濟雨述郡 景德王改名 今懷德郡 嶺峴二 儒城縣 本百濟奴斯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赤烏縣 本百濟所比浦縣 景德王改名 今德津縣.

라 되어 있다. 즉, 比豊郡은 원래 백제 雨述郡으로 景德王 때 명칭을 懷德郡으로 개명하였다. 소속된 縣은 둘로서, 儒城縣은 본래 백제 奴斯只縣으로 경덕왕 때 명칭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대로 사용한다. 赤烏縣은 본래 백제 所比浦縣으로 경덕왕 때 명칭을 고쳤는데, 지금의 德津縣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sup>58)</sup>. 한편, 백제 雨述郡은 신라의 古尸山郡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백제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다. 대전일원이 본격적으로 백제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시기는 웅진천도 후로서 東城王代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동성왕은 현 서구 牛鳴洞에 비정되는 牛鳴谷에서 사냥을 하거나(492년)<sup>59)</sup>, 沙井城을 축조하고(498년)<sup>60)</sup> 炭峴에 木柵을 세워 신라에 대비(501년)<sup>61)</sup>하는 등 신라와의 접경지역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많은 방비를 실행하였다. 또한 백제멸망 후 백제부흥활동이 일어날 때, 대전지역이 백제-신라간 주요 교통로이자, 소위 ‘熊津道’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최근 연구성과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sup>62)</sup>.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관방유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40여개의 關防遺蹟이 위치해 있다. 대전 분지에 위치한 관방유적들은 대전분지를 중심으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월평동쪽으로 뻗어나와 대전분지를 동-서 방향으로 양분하고 있는 구룡성산지에 관방유적이 위치해 있고, 대전천, 유등천 등 천변 계곡부를 따라 양안의 산 정상부에도 관방유적이 조성되어 있어 주요 교통로를 감시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동쪽 계족산을 중심으로 하여 鷄峴城, 三丁洞山城, 葛峴城, 古鳳山城, 犬豆城, 馬山洞山城, 老姑城, 鷄足山城, 長洞山城, 梨峴洞山城, 城峙山城 등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58) 대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東史綱目》, 《海東繹史》 등의 다양한 古文獻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9)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 14年 10月. 冬十月王獵牛鳴谷親射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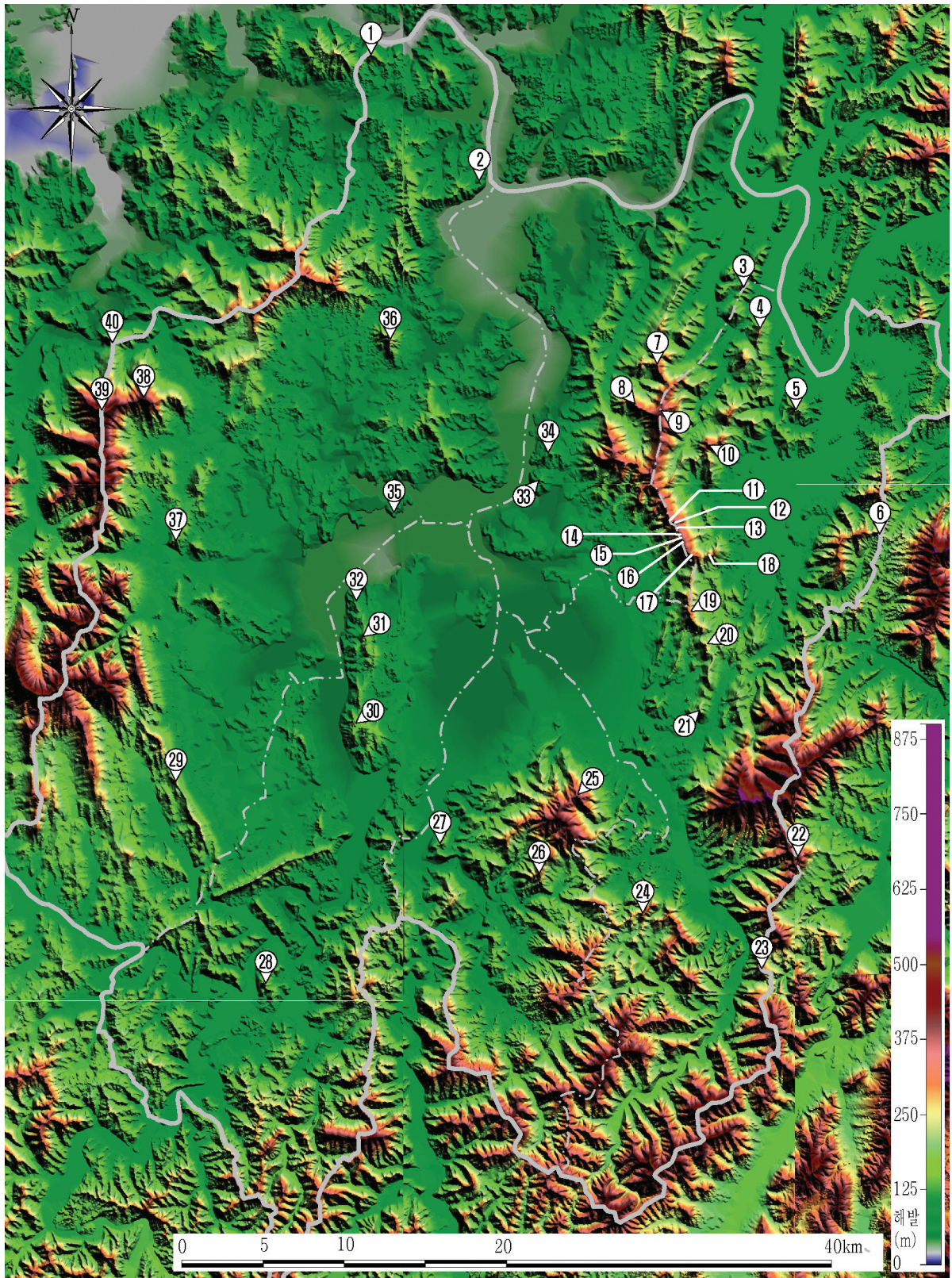
60)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 20年 7月. 秋七月 築沙正城 以率毗嶺之.

61)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 23年 7月. 七月 設柵於炭峴以備新羅.

62) ① 沈正輔 1997, 「三國史記 文武王答書에 나타나는 ‘熊津道’에 대하여」, 『黃山梨興鐘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② 沈正輔 1983, 「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관한 研究」, 『百濟研究』 1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③ 李販燮 2009, 「古代 山城의 分布와 네트워크 研究 - 新羅軍의 百濟 進擊路를 통해 본 古代 交通路」,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박물관.



1. 蘇文城 2. 今古洞山城 3. 城峙山城 4. 老姑山城 5. 馬山洞山城 6. 白骨山城 7. 梨峴洞山城 8. 長洞山城 9. 鷄足山城 10. 犬頭城 11. 迭峴城 6堡壘 12. 迭峴城 5堡壘 13. 迭峴城 4堡壘 14. 迭峴城 3堡壘 15. 迭峴城 2堡壘 16. 迭峴城 1堡壘 17. 迭峴城 18. 古鳳山城 19. 陵城 20. 葛峴城 21. 三丁洞山城 22. 昆崙山堡壘 23. 鷄峴城 24. 所好洞山城 25. 寶文山城 26. 國師峯堡壘 27. 沙井城 28. 黑石洞山城 29. 城北洞山城 30. 道솔산堡壘 31. 마봉재堡壘 32. 月坪洞山城 33. 堂山城 34. 連丑洞山城 35. 九城洞山城 36. 赤鳥山城 37. 老隱洞 王駕峰山城 38. 盤石洞 王駕峰山城 39. 雨傘峰堡壘 40. 案山洞山城

【도면 8】 대전 일원의 산성 분포

는 所好洞山城, 寶文山城, 國師峯堡壘, 沙井城 등이 분지방향 및 곡부교통로 방향을 따라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는 黑石洞山城, 城北洞山城, 案山洞山城 등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백제시대 소비포현의 중심성곽으로 판단되는 德津山城(赤鳥山城), 今古洞山城 등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대전분지 내 구룡성산지 주변으로 月坪洞山城, 九城洞山城, 連丑洞山城, 堂山城 등이 분포해 있다. 최근 三國의 角逐場으로서 대전 일원이 三國時代 要衝地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新羅의 경우 據點城과 衛星堡壘가 셋트를 이루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百濟는 일정한 간격의 산성배치를 통해 감시와 교통로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백제는 개별산성들의 點間 連繫網, 신라는 거점성을 중심으로 한 그룹間 連繫網의 형성을 통해 대치하는 양상이 대전일원에서 확인된다고 보는 최근 연과성과가 있어 주목된다<sup>63)</sup>.

統一新羅時代 대전일원은 景德王 때 比豐郡으로 개칭하였지만 특징적인 유적이 존재하지 않다가, 소위 羅末~麗初期로 불리는 統一新羅末~高麗初에 들어 원신흥동유적<sup>64)</sup>으로 대표되는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원신흥동유적에서는 작업장으로 보이는 建物址와 豎穴遺構, 燒成遺構, 우물 등의 유구와 함께 수레바퀴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高麗時代에 들어 대전지역은 1018년(고려 현종9) 公州牧에 편입되었다가 1413년(조선 태종13) 懷德縣과 鎭岑縣으로 분리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편에 의하여 회덕현·진잠현 및 공주군 일부를 편입하여 회덕군이라 하였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大田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高麗時代 이후로는 상대동 원골<sup>65)</sup>, 상대동 중동골유적<sup>66)</sup>, 法洞 建物址遺蹟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고려시대의 대규모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원골유적의 건물지 내에서는 ‘○成縣官’ 銘 기와편이 수습되어 高麗時代 儒城縣과 결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法洞 建物址遺蹟<sup>67)</sup>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송촌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대전보건전문대학(현 대전보

63) 李販燮 2005, 「三國時代 山城과 古代 交通路에 대한 고찰 - 大田 北部圈의 文義를 중심으로」, 『湖西考古學』13, 湖西考古學會.

64) 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가편입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 대전 원신흥동유적』 지도 위원회의 자료.

65) 도문선·육심영 2009, 「대전 상대동 원골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서 고고학회.

66) 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대동 중동골유적』.

67) ① 大田産業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 1995, 『大田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②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07, 『송촌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③ 大田保健專門大學博物館 1995, 『大田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 文化遺蹟 試掘調査略報告書』.

④ 한남대학교박물관 1996, 『경부고속도로(회덕-증약간) 확장예정구간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⑤ 한남대학교박물관 1995, 『대전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유적(법동 건물지) 발굴조사 약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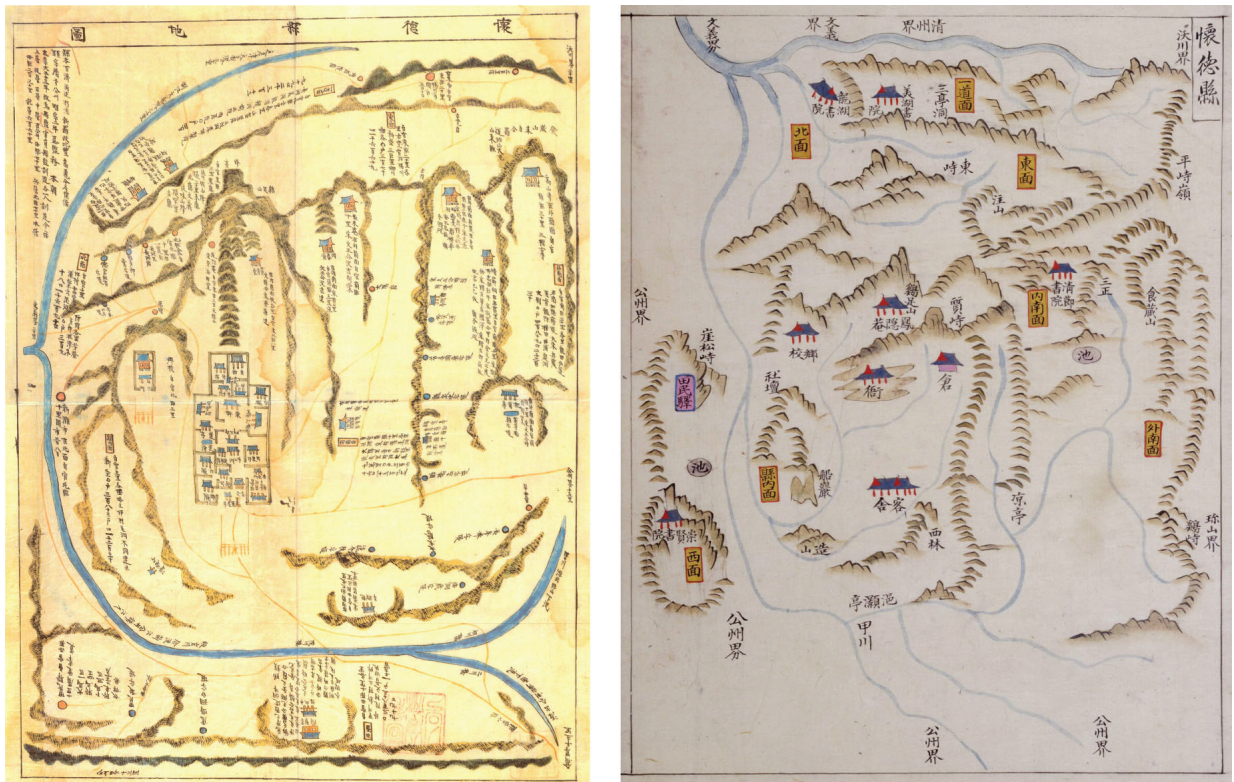
⑥ 한남대학교박물관 1996, 『대전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유적(2차) 발굴조사 약보고-법동 건물지 지구』.

⑦ 충남대학교박물관 1996, 『경부고속도로 회덕-증약간 확장예정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자료집』.

⑧ 嘉耕考古學研究所 2009, 『대전 송촌생활체육공원(4단계) 조성공사부지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⑨ 嘉耕考古學研究所 2010, 『대전 송촌생활체육공원(4단계) 조성공사부지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건대학) 박물관의 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석축과 다량의 와편, 자기편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후 한남대학교 박물관, 대전보건전문대학, 가경고고학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된 바 있다.



【도면 9】 廣輿圖(左)와 1872年 地方地圖(右)에 표현된 懷德縣 일원

朝鮮時代 유적으로는 원신흥동 덩레기유적<sup>(68)</sup>이 있다. 여기에서는 住居址, 竪穴遺構, 가마, 土壙墓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竪穴住居址로 구들시설, 부뚜막시설 등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었고 鐵花粉靑沙器片, 靑磁標匙, 白磁片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單純土壙, 二段堀壙 형태가 확인되었고 출토유물로는 銅串 등이 있다. 가마는 2기가 확인되었는데, 반지하식 가마로 前面作業場, 燃燒部, 燒成部 및 煙筒部 등이 남아 있으며 분청사기편, 백자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68)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대전 원신흥동 덩레기유적』.



금번 조사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주변유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사지역 인접 일원의 舊石器時代 유적으로는 세천동 3지점 유물산포지<sup>69)</sup>, 삼정동 선사유적 산포지 1·2<sup>70)</sup> 등이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打製石器, 찌개, 몸돌 등의 유물들이 산견되고 있다. 新石器時代 유적으로는 삼정동 선사유적 출토지 1·2<sup>71)</sup>가 있으며, 갈돌, 굴지구류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靑銅器時代 유적으로는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서 삼정동 선사유적<sup>72)</sup>, 세천동 선사유적<sup>73)</sup> 등과 함께 발굴조사된 유적으로서 加午洞遺蹟이 있다. 가오동유적은 靑銅器時代부터 朝鮮時代에 이르는 生活遺構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I 지구에서 靑銅器時代 支石墓 1기, 高麗~朝鮮時代에 해당하는 建物址 2동, 朝鮮時代 石列遺構 1기, 竪穴住居址 1기, 溫突施設 등이 조사되었고, II 지구에서는 靑銅器時代 住居址 2기, 圓形 竪穴遺構 8기, 朝鮮時代 竪穴遺構 3기, 高麗~朝鮮時代 土壙墓 13기가 조사된 바 있다. 조사지역 주변의 초기철기~역사시대 유적으로는 墳墓遺蹟과 建物址 등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가오동 추정 고분<sup>74)</sup>, 삼정동 삼전들 토기 산포지, 삼정동 삼전들 추정 건물지, 판암동 물방아골 추정 건물지<sup>75)</sup>, 판암동 물방아골 토기·자기 산포지<sup>76)</sup>, 가오동 새터들 토기 산포지, 삼정동 선사유적 산포지<sup>77)</sup> 등이 있다. 이중 가오동 추정고분군은 현재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에서 灰靑色硬質土器片과 魚骨文 수키와편이 발견된 바 있어 三國時代 古墳 또는 高麗時代 生活遺蹟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현재는 도로의 개통과 택지개발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형이 훼손된 상태이다.

삼정동 토기 산포지와 삼전들 토기산포지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량의 三國時代 灰靑色硬質土器片과 高麗時代 이후의 磁器片 등이 확인되어 역시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삼정동 삼전들 추정건물지에서는 지표면의 넓은 범위에 걸쳐 軟質土器片과 灰靑色硬質土器片, 그리고 기와편이 散在되어 있어 건물지 등의 생활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판암동 물방아골 추정건물지와 대전 판암동 물방아골 토기·자기산포지는 현재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지형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밭으로 이용되면서 잔존하고 있는 경작지에서 白磁片, 灰靑色硬質土器片 등이 확인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예상된다.

69) 김근완·서대원 2003, 註 11의 글.

70) 김근완·서대원 2003, 註 11의 글.

71) 김근완·서대원 2003, 註 11의 글.

72) 심정보·공석구 1994,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건설예정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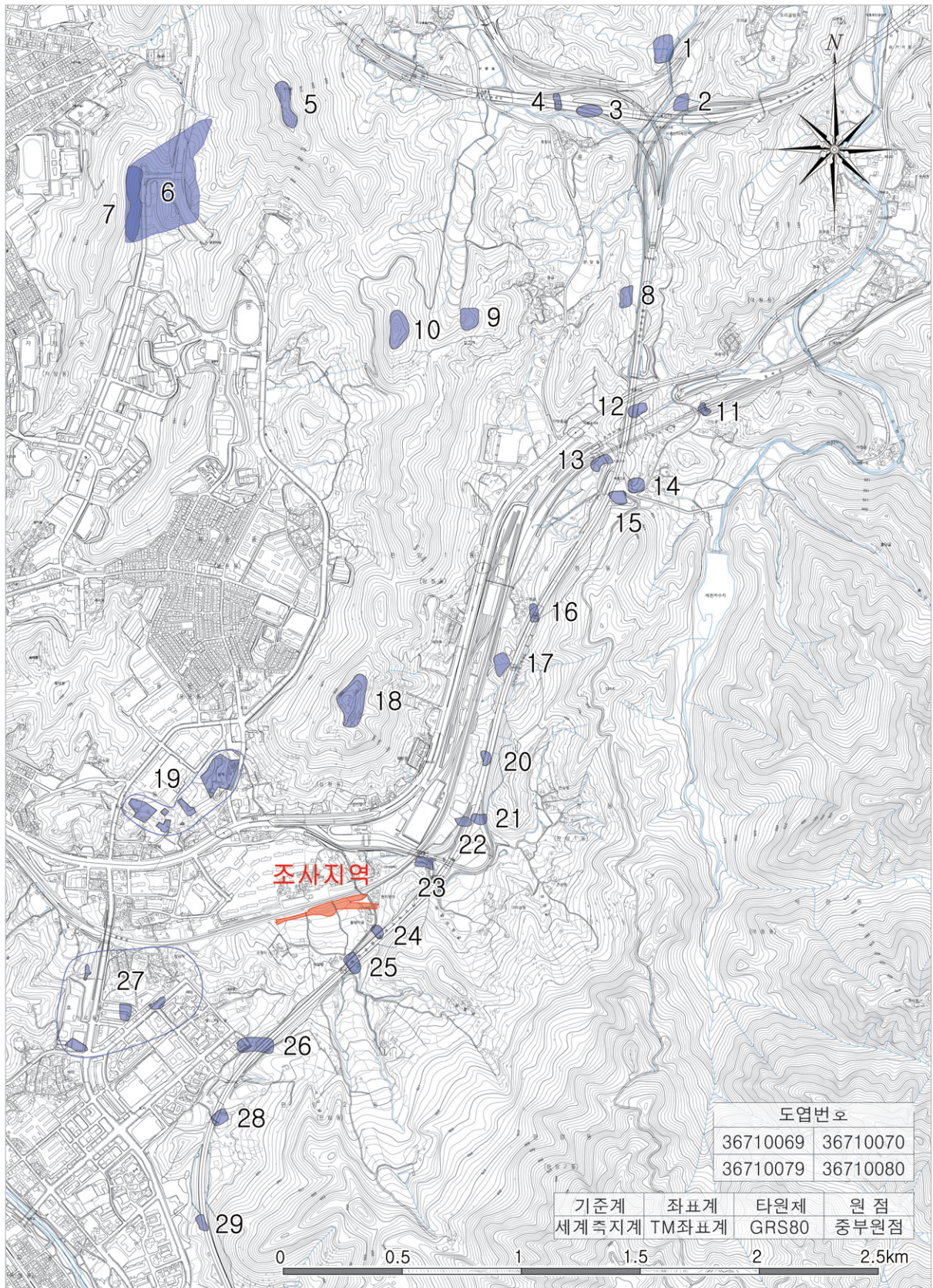
73) 김근완·서대원 2003, 註 11의 글.

74) 심정보·공석구 1994, 註 71의 글.

75) 심정보·공석구 1994, 註 71의 글.

76) 심정보·공석구 1994, 註 71의 글.

77) 김근완·서대원 2003, 註 11의 글.



【도면 10】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유적 분포도(S=1/25,000)

【표 1】 주변 문화유적 목록

\*번호는 도면 10과 동일함

번호	유적명	시대	성격
1	비룡동 추정 고분군	삼국~ 통일신라	고분
2	비룡동 토기·자기 산포지	삼국~조선	고분
3	비룡동 백자산포지	조선	산포지
4	비룡동 토기산포지	(원)삼국	산포지
5	가양동 능성	삼국	성곽
6	용운동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산포지
7	용운동 고분군	삼국	고분
8	비룡동 선사유적	원삼국~고려	산포지
9	비룡동 고분군	삼국	고분
10	용운동 갈현성	삼국	성곽
11	세천동 3지점	구석기 삼국~조선	산포지
12	세천동 선사유적	청동기~삼국	산포지
13	세천동 1지점	삼국 고려~조선	산포지
14	삼성동 토기산포지1	삼국	산포지
15	삼정동 토기·자기 산포지	삼국~조선	산포지

번호	유적명	시대	성격
16	삼정동 추정건물지	삼국	건물지
17	삼정동 선사유적	청동기·원삼국	산포지
18	삼정동 산성	삼국	성곽
19	판암동유적	원삼국·조선	생황·분묘
20	삼정동 토기산포지2	고려	산포지
21	삼정동 삼정들 토기산포지	삼국·고려	산포지
22	삼정동 삼정들 추정건물지1	삼국 고려~조선	건물지
23	사정동 삼정들 추정건물지2	통일신라~조선	건물지
24	삼정동 물방아골 추정건물지	삼국~조선	건물지
25	판암동 물방아골 토기·자기산포지	삼국~조선	산포지
26	가오동 추정고분군1	원삼국 ~통일신라	고분
27	대전 가오동유적	청동기 고려~조선	주거지
28	가오동 새터들 토기산포지	고려~조선	산포지
29	가오동 추정 고분군2	삼국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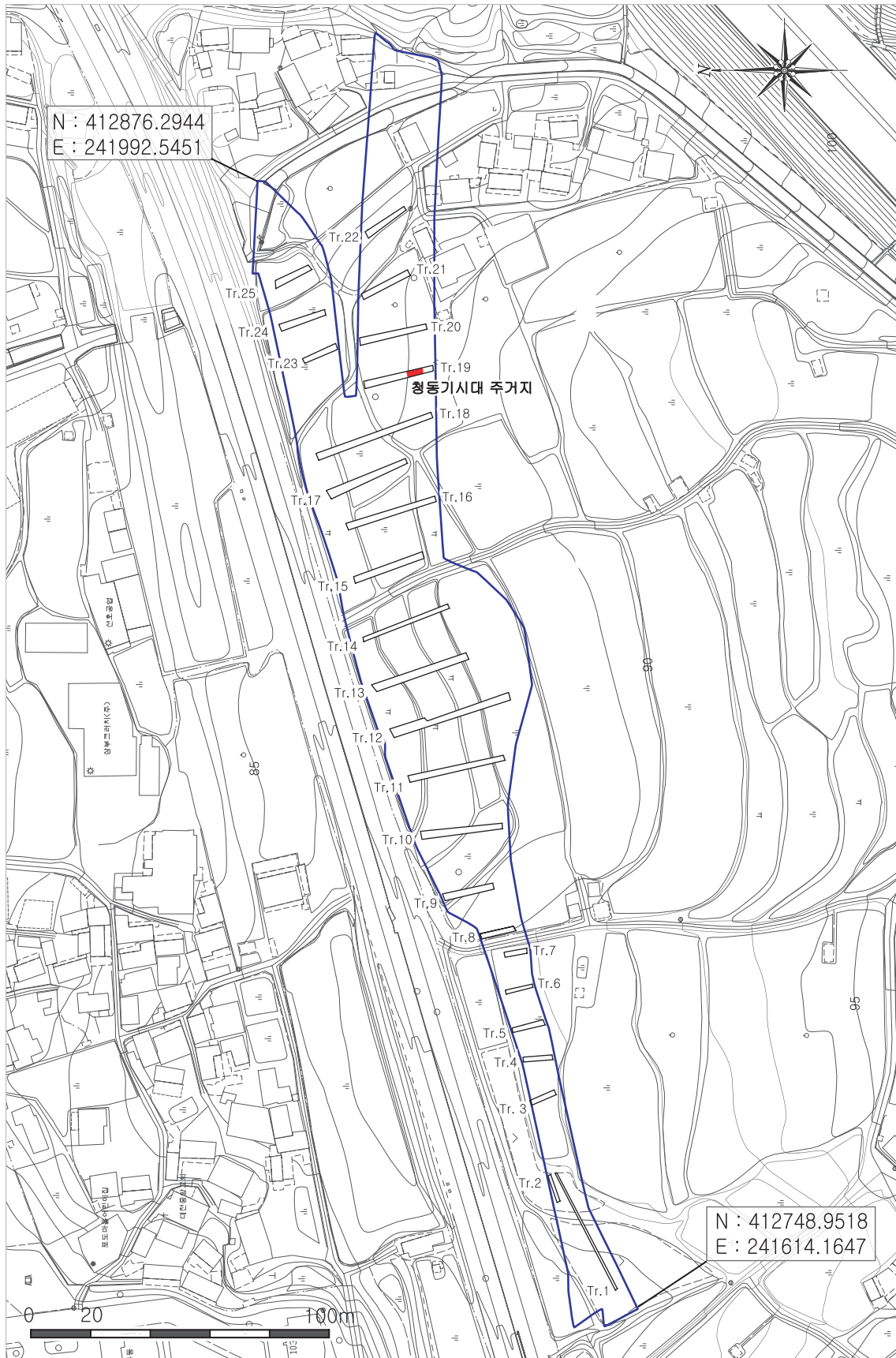
### III. 調査方法과 堆積様相

#### 1. 調査範圍와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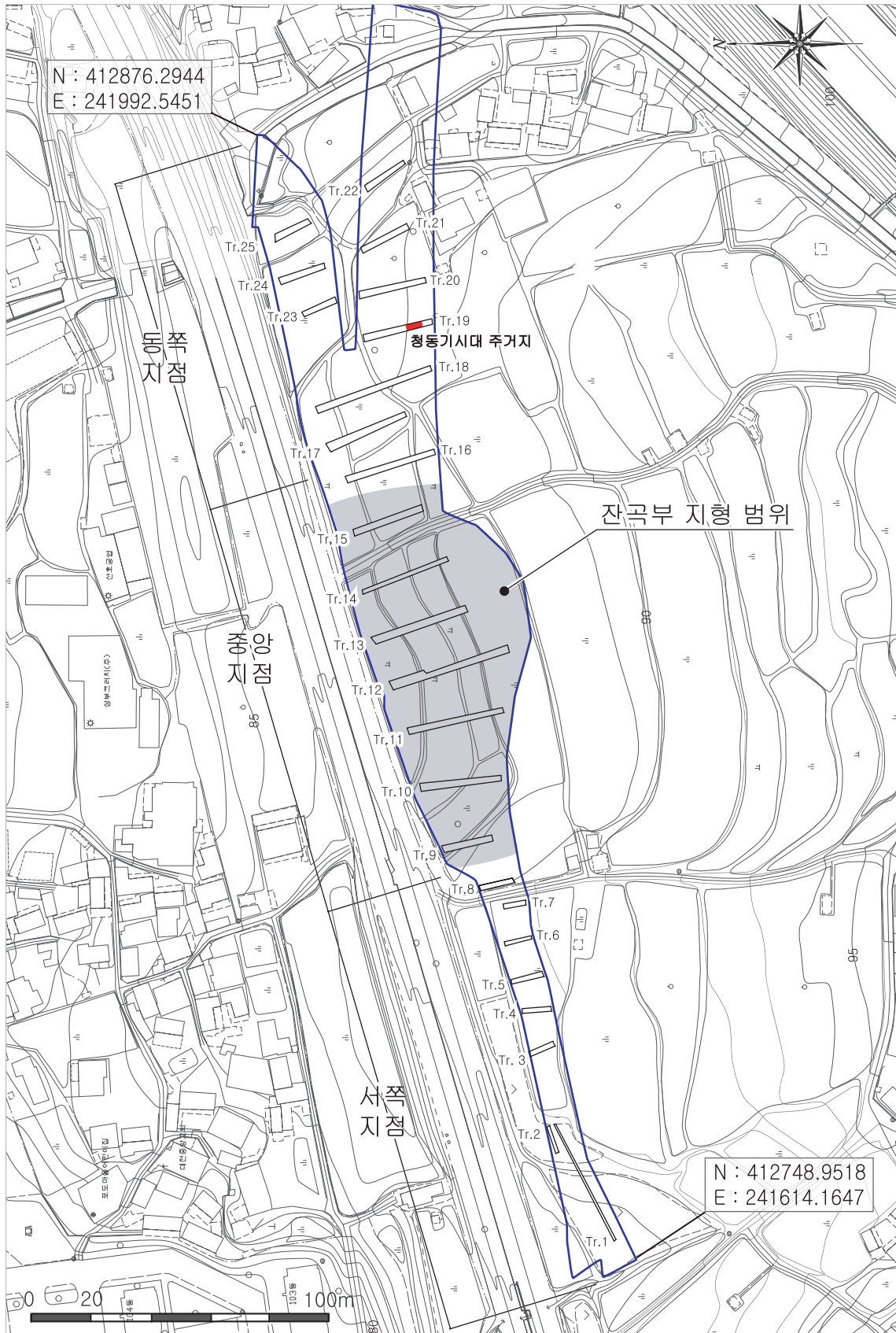
금번 조사는 韓國鐵道施設公團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건설구간으로서 2005년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 동구 오정동에 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까지 총 18.639km구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地表調査 구간 중 제2지역이 금번 조사대상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해당하며, 대전도심구간의 남동쪽 끝부분으로서, 판암 제1과선교 예정부지 중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 해당한다. 당시 도보답사 과정에서 靑銅器時代 無文土器片, 추정 石器片 그리고 高麗時代 이후 유물 등이 수습되어, 면적 71,562㎡에 대해 遺物散布地로 명명된 바 있다. 산포범위는 식장산의 북쪽 완사면 하단부에 펼쳐져 있는 경작지역으로 남쪽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인접지역까지이며, 북쪽은 경부고속철도 노선까지이다. 금번 試掘調査는 이 중 대전도심(2차) 철도노선이 건설예정구간에 대한 것으로 유물산포지의 전체범위 중 완록사면 하단부에 해당한다.

地形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차 완만해지는 완록사면에 해당하며, 남쪽에서 진입로가 시작되어 북쪽의 철도노선지역까지 4개의 小路가 놓여져 있으면서, 조사지역을 3등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조사범위 외의 경작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형상황과 小路, 경작활동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시굴조사 범위는 12,582㎡로서 동서로 細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동쪽부분에서는 남과 북 두 갈래로 조사범위가 나뉘어 있어 굴토시 토사 적치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만 했다. 우선 전체적으로 북쪽을 향해 완만해지는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경작지 역시 이에 따라 얇은 段差를 두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굴트렌치는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폭 1.2m 내외 정도, 길이는 조사범위의 남북 폭에 따라 10~40m 정도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였으며, 트렌치간 간격은 5~10m 정도로 설치하였다(도면 11). 기본적으로 굴토 깊이는 기반 생토부까지 굴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일정한 깊이로 굴토하면서 퇴적토 내에 존재할 수 있는 遺物包含層이나 遺構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생토부까지 굴토하였다.



【도면 11】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 및 유구 분포도(S=1/2,000)



【도면 12】 조사지역 내 지점구분 및 지형상황(S=1/2,000)

## 2. 堆積樣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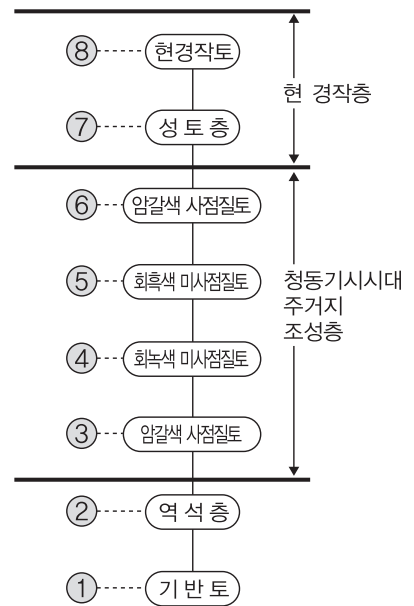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 지질은 제4기 충적층(Qa; 도면 5)으로 남쪽의 식장산과 북쪽의 계족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微高地 사이의 곡부 남완사면에 해당하며, 토양모재는 주변에 변성암이 분포하지만, 조사 범위 내는 산성암 위주로 되어 있어 풍화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도면 6). 그리고 식장산에서 북쪽을 향해 뻗어 내려오는 잔능선 사이의 완만한 경사지대로 지표상에서는 선상지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트렌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퇴적양상은 잔곡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완사면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의 서쪽부부터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트렌치에서 확인되는 퇴적양상은 황적갈색의 생토(①)를 기반으로 하여 서쪽 하단부가면서 부분적으로 역석과 사질토가 섞인 층(②)이 분포하며, 상부에 역석이 일부 섞인 암갈색 사점질토(③)와 경작토(⑧)가 위치해 있다. 트렌치에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양상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며, 사면 하단부로 유수에 의한 퇴적이 이루어진 후 현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 양상으로, 조사 당시에서 하단부에서는 용출수가 흘러 나왔다.

제5트렌치로 오면서 지표는 얇은 양상을 띠는데, 경작토를 걷어내자 바로 생토가 확인되었다. 약간 밝은 황적갈색의 생토(①)와 경작토(⑧)의 층간 경계가 선명하게 구분되고 있어,

경작과정에서 생토까지 삭토와 굴토행위가 영향을 미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9트렌치는 이전의 트렌치에 비해 굴토 깊이가 깊는데, 역시 황적갈색의 생토(①)를 기반으로 하여 회녹색의 미사점질층(④)과 회흑색 미사점질층(⑤)이 퇴적되어 있으며, 회황색의 성토층(⑦)과 현 경작토(⑧)가 상부에 위치해 있다. 제1~8트렌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회녹색 및 회흑색의 미사점질토가 확인되고 있어 제9트렌치를 시점으로 하여 미곡부지형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여주면, 부분적인 성토과정을 통해 현재의 평탄한 경작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범위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제12트렌치에서는 제9트렌치의 퇴적양상과 제1트렌치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황적갈색의 기반토 위에 모래가 섞인 역석층과 암갈색 사점질토가 위치



【도면 13】 조사지역 층위 매트릭스

---

해 있고, 상부에는 지표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회녹색 미사점질토가 위치해 있다. 다만 미사점질토 내에 잔자갈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양상이다.

제19트렌치에서는 제9·12트렌치와는 달리 다시 구릉 완사면상에 위치한 잔능선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트렌치 하단부 쪽으로는 생토(①) 위에 순수한 모래가 섞인 역석층(②)이 존재하면서, 약하게 회녹색의 미사점질토(④)가 끼어 있으며, 상부에 암갈색 사점질토와 현 경작토가 위치해 있다.

현재는 편평하게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으면서, 조사범위 중앙부가 남북방향으로 약하게 谷部 형태를 띠고 있지만, 퇴적양상에서 중앙부는 동쪽과 서쪽 가장자리에 비해 비교적 깊은 谷部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간혹 순수한 모래가 섞인 역석층이 위치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즉, 조사범위의 중앙부 일원은 지표수가 집중되어 북쪽으로 흘러드는 곳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트렌치를 설치한 결과, 靑銅器時代 住居址는 이러한 곡부지대를 피해 동쪽에 위치한 미능선부 정상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완사면상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IV. 調査内容

### 1. 조사지역 서쪽지점(Tr.1~8)

조사지역내 트렌치는 5~10m 간격으로 모두 25개소 설치하였으며, 트렌치 굴토 결과 미지형에 따라 3개 지점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지역 중 서쪽지점은 서쪽에서부터 설치된 제1~8트렌치에 해당하며, 조사지역내를 동서방향으로 3등분하고 있는 小路 중 서쪽에 위치한 小路 주변에 이른다(도면 12).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향해 뺀 완록사면의 미능선부에 해당하며, 제1트렌치에서는 다시 서쪽을 향해 잔곡부로 이어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제1,2트렌치는 사면 방향을 고려하여 동서방향으로 설치하고, 3~8트렌치는 사면 방향에 따라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퇴적양상은 서쪽지점 중앙에 해당하는 5트렌치에서는 기반토와 현 경작토간의 層間境界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양상에서 볼 때, 삭토와 경작행위를 통해 기반토까지 지형변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범위의 가장 서쪽에 해당하는 제1트렌치에서는 하단부로 가면서 지표수가 용출되고, 층위상 순수모래가 섞인 역석층이 확인되고 있어 퇴적과정에서 유수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제5트렌치를 기점으로 하여 동과 서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동시에 퇴적깊이가 깊어진다. 조사결과, 서쪽지점에서 유구나 유물 등 유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진 1】 조사지역 서쪽지점 전경(북서에서)

## 2. 조사지역 중앙지점(Tr.9~16)

조사지역 중앙지점은 제9~16트렌치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미능선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잔곡부로서 북쪽으로 향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도면 12). 즉, 북쪽으로 향해 뺀 완록사면 사이의 잔곡부에 해당하며, 사면 방향을 고려하여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미능선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회녹색 미사점질토와 상부의 회흑색 미사점질토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퇴적양상은 곡부내 지표수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조사과정에서도 주변 토양이 상당히 습한 상황을 보였다. 그리고 양쪽 미능선부에 비해 굴토 깊이가 깊은 편으로서, 하부에 순수모래가 다수 섞인 역석층이 일부 트렌치의 하단부에 발달해 있다.

퇴적양상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능선에서 곡부로 변환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제9트렌치에서 역석층은 확인되지 않은 채, 회녹색 및 회흑색의 미사점질토가 발달하다가 곡부 중앙부에 해당하는 제12트렌치 주변으로 오면서 역석층이 기반토 상부에 발달해 있다. 즉, 고도상 가장 낮은 지점을 따라 모래섞인 역석층이 형성되어 있고 곡부 전반에 걸쳐 상부에 미사점질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이후 부분적인 성토과정을 통해 현재 경작지를 조성하고 있다. 조사결과, 중앙지점에서 유구나 유물 등 유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진 2】 조사지역 중앙지점 전경(북서에서) 및 Tr.9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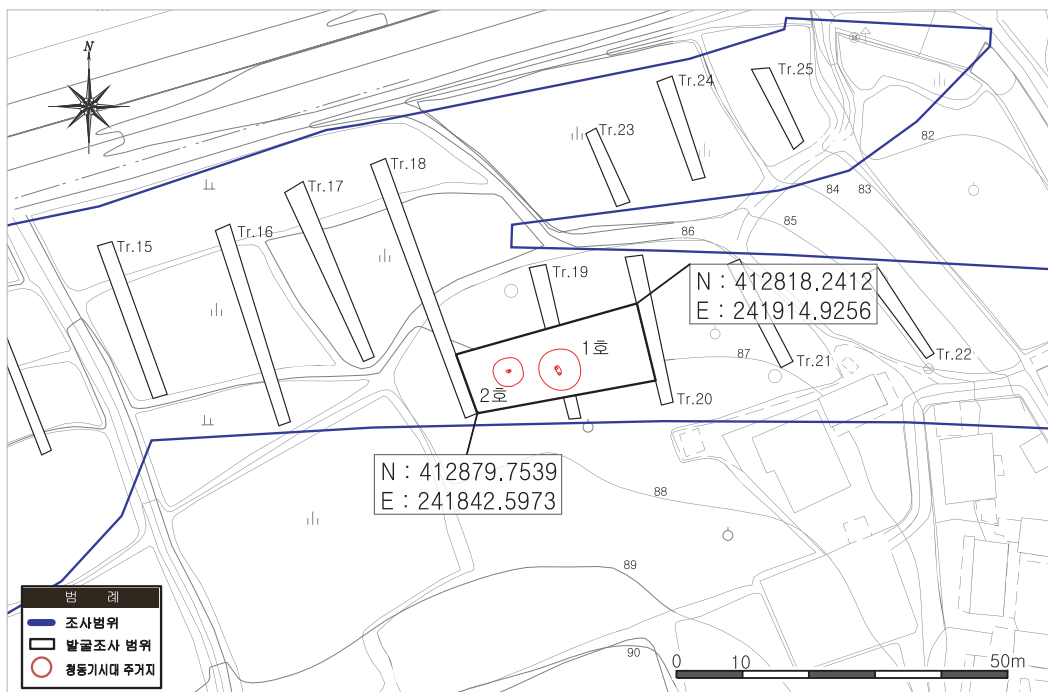
### 3. 조사지역 동쪽지점(Tr.17~25)

조사지역 동쪽지점은 제17~25트렌치에 해당하며, 미능선 지형으로 조사범위 동쪽에서는 조사경계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도면 12).

동쪽지점 중앙부에 해당하는 제18트렌치를 기준으로 하여 미능선의 정점을 이룬 후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양상으로서, 미능선 동사면 하단부 주변으로는 현재 일반가옥이 들어서 있어서 트렌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다시 잔곡부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19트렌치에서 확인되는 동쪽지점의 층위양상은 미능선 정상부를 지나 완사면이 시작되는 지점에 해당하며, 기반토위에 부분적으로 역석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역석층을 기반으로 하여 靑銅器時代 住居址 1기가 試掘調査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住居址의 壁體는 역석층 상부에 퇴적되어 있는 암갈색 사점질토부터 현 경작층 하부에 이르는 퇴적토를 굴광하고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내 이외 지점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쪽지점의 제19트렌치에서 1호 住居址 1기가 확인되어 주변에 대한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297.74㎡에 대한 확장 제토를 실시한 결과, 트렌치상에서 확인되었던 靑銅器時代 住居址(1호)에서 서쪽으로 2.3m 정도 떨어져 小形의 住居址 1기(2호)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 모두 평면형태 圓形의 소위 '松菊里形 住居址' 이다(도면 14).

조사된 유구 및 유물상황은 다음과 같다.



【도면 14】 조사지역 동쪽지점의 트렌치 배치 및 유구배치도(S=1/1,000)

## 1) 靑銅器時代

### (1) 1號 住居址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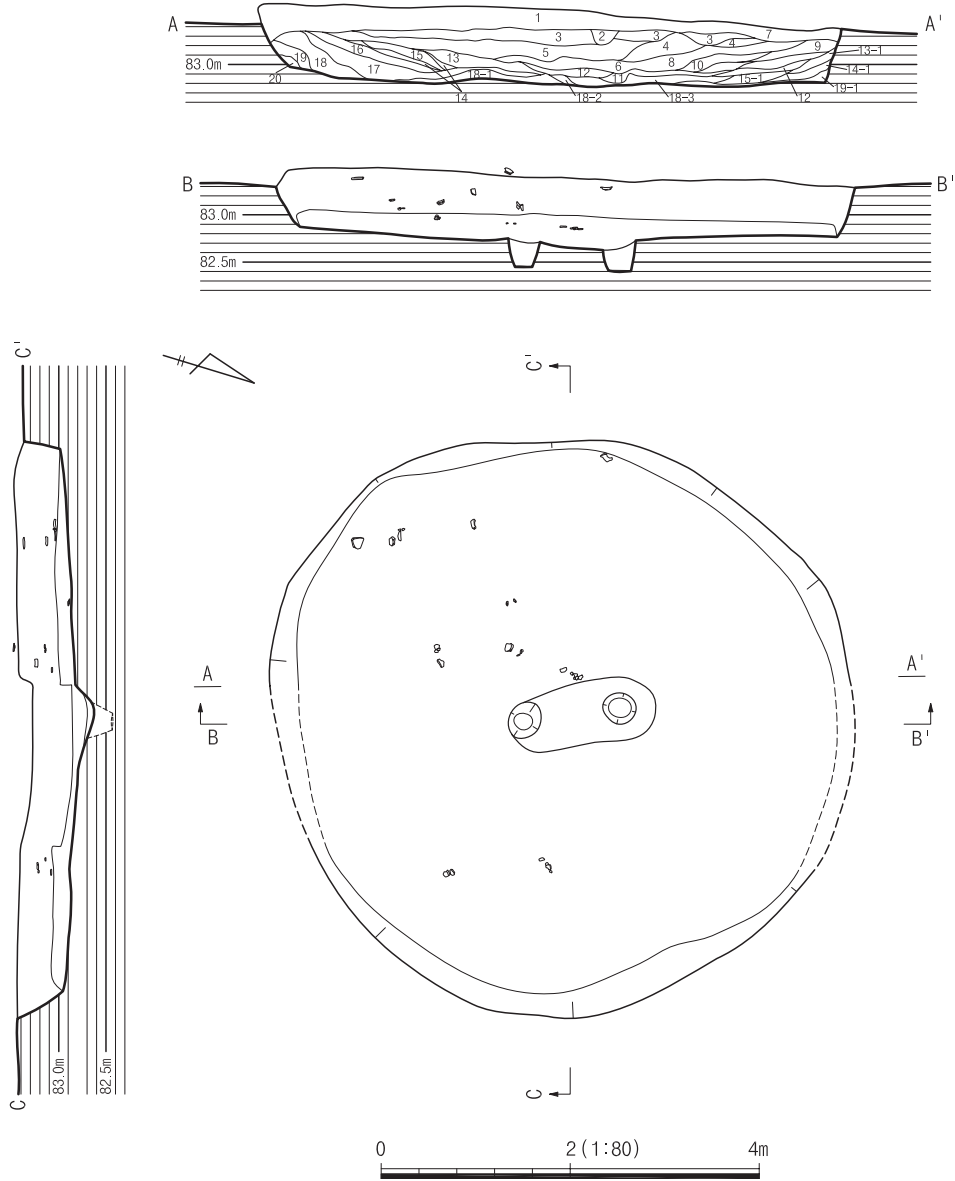
1號 住居址는 시굴조사 당시 19번 트렌치에서 무문토기편이 일부 노출되면서 바닥면 정리과정에서 유구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해발고도 약 87m의 구릉지 사면부에 위치하며, 거의 준평탄지 상에 조성되었다. 서쪽 동일 등고선 상 약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靑銅器時代 2號 住居址가 위치해 있다.

住居址는 완사면의 하단부에 발달해 있는 황적갈색 사점질토 상부의 자갈이 많이 섞인 崩積土 양상의 역석층을 기반으로 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圓形에 가깝다. 벽면은 대부분 수직에 가깝게 굴광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경사직 굴광된 부분도 존재한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직경 626cm, 잔존깊이 43cm이다. 바닥면의 면적은 25.8m<sup>2</sup>이다. 조사는 시굴조사 당시 설치하였던



【사진 3】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①조사완료, ②조사중, ③유물출토, ④내부시설, ⑤무문토기 저부편 출토상황)

- |                 |                   |                     |
|-----------------|-------------------|---------------------|
| 1. 암회색 사질점토     | 10. 회색+적갈색 사질점토   | 16.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 2. 암갈색 사질점토     | 11. 황적색 사질점토      | 17. 황갈색 사질점토        |
| 3. 명적갈색 사질점토    | 12. 회색+명황갈색 사질점토  | 18. 적황갈색 사질점토       |
| 4.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13.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18-1. 회색+암갈색 사질점토   |
| 5.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13-1. 회색+황색 사질점토  | 18-2. 회색+명황갈색 사질점토  |
| 6. 회색+명황갈색 사질점토 | 14. 회색+암황갈색 사질점토  | 18-3. 회색+흑색(제) 사질점토 |
| 7. 황갈색 사질점토     | 14-1. 회색+황색 사질점토  | 19. 회색+ 황갈색 사질점토    |
| 8. 명적갈색 사질점토    | 15.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19-1.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 9.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15-1.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20.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도면 15】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및 토층도

트렌치 배치 방향을 고려하여 남북으로 ‘一’ 자형태의 토층 독을 남기고 내부 퇴적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직 및 수평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바닥면은 자갈과 모래가 혼합된 역석층을 기반으로 하고 내부 바닥면부터 木炭이 부분적으로 부스러진 상태로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층, 황갈색 사질점토층, 흑갈색 사질점토층, 교란토 및 표토층의 순서로 퇴적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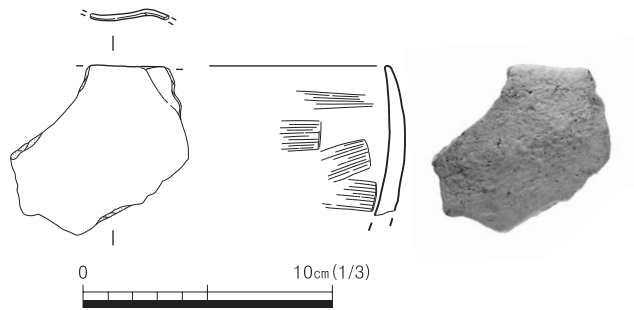
다. 유물은 내부 중앙부의 바닥에 인접해 있는 흑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일부 노출되었고 대부분은 그 상부에 존재하는 흑갈색 사질점토층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內部施設은 바닥 중앙부에서 장축길이 156cm, 깊이 18cm 정도의 橢圓形 竪穴이 확인되었다. 타원형 수혈 내부 양쪽 가장자리에는 기존의 '松菊里型 住居址' 에서 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직경 34cm, 깊이 32cm 정도의 주공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주거지 내외에서 주공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松菊里型土器, 無文土器片 등이 대부분 파편상태로 출토되었다.

## ②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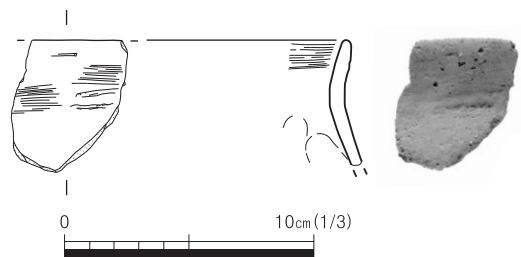
1.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암적갈색, 內面은 암적갈색+흑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외만하다가 직립한 후 내만한다. 구연부의 성형은 끝단 아래 약 3cm 부분을 木理調整하였다. 器外面은 박리가 심하나 역시 木理調整痕이 관찰된다.



1

[잔존길이 6.7cm, 두께 0.3~0.7cm]

2.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황적색, 內面은 황갈색+흑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직립하다가 약 15°정도로 외만한다. 구연부의 성형은 목판누르기로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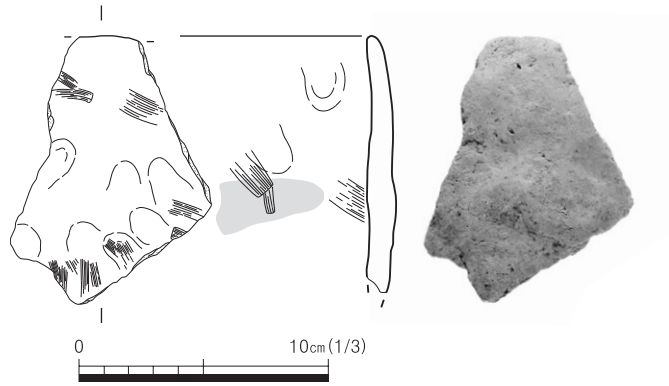


2

[잔존길이 5.1cm, 두께 0.4~0.6cm]

3.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황적색+흑갈색, 內面은 황적색+흑갈색을 띠고 있

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자연스럽게 내만한다. 内外面 모두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3

[잔존길이 10.6cm, 두께 0.6~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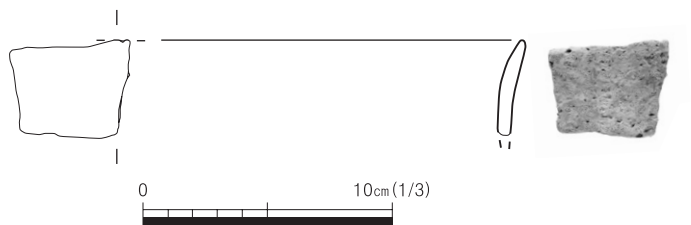
4.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흑갈색, 内面은 황적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동체부에서 직립하고 끝을 누르면서 성형하여 口脣部를 얇게 처리하였다. 内外面 모두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4

[잔존길이 4.0cm, 두께 0.4~0.7cm]

5.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황백색, 内面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약하게 외반하여 올라간다. 内外面 모두 박리가 심하여 調整痕은 관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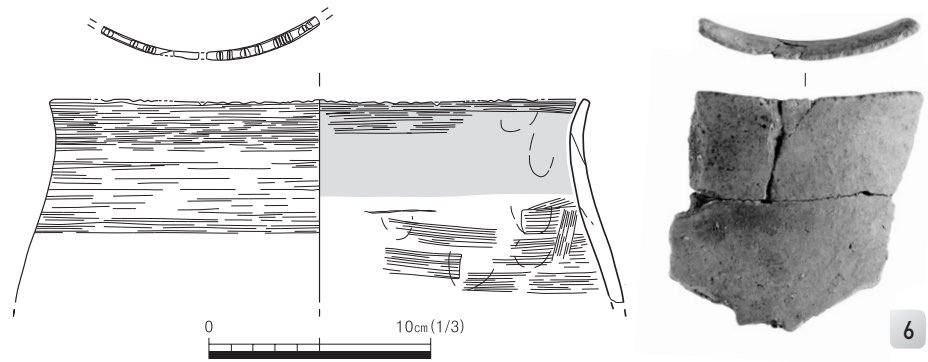


5

[잔존길이 3.9cm, 두께 0.5~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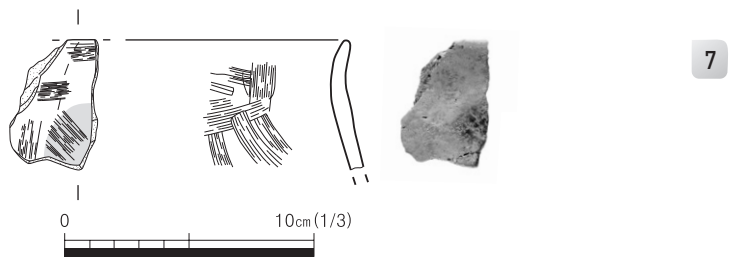
6.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황백색,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내만하여 울

라가다가 끝단에서 살짝 외반한다. 口脣部에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刻目紋이 관찰된다. 内外面に 指頭壓痕과 木理調整痕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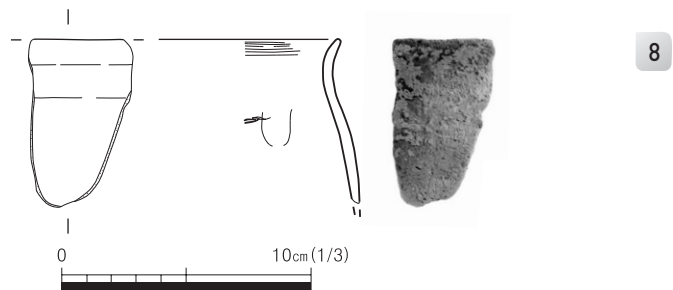
[잔존길이 9cm, 추정구경 24cm, 두께 0.8cm]

7.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内面 모두 암적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내만하여 올라가다가 끝단에서 직립한다. 内外面に 指頭壓痕이 관찰되며, 内面에는 木理調整痕이 관찰된다. 또한 外面에는 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길이 5.1cm, 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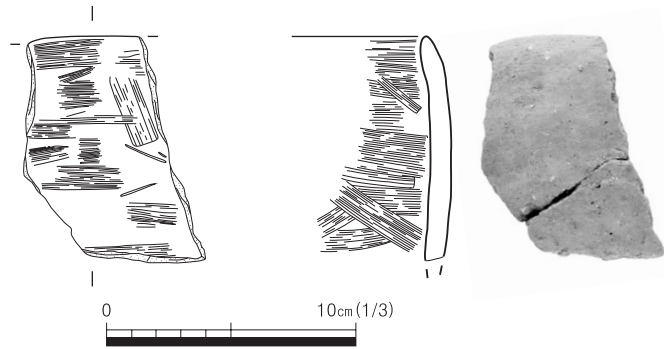
8.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흑적색, 内面은 흑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내만하여 올라가다가 頸部에서 직립하며, 구연 끝단에서 외반한다. 内外面に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6.4cm, 두께 0.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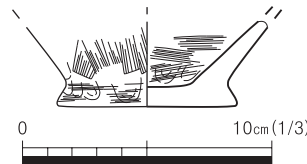
9.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内外面 모두 황적색을 띠고 있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외만하여 올라가다가 구연 끝단에서 직립한다. 内外面에 指頭壓痕과 목리조정흔이 관찰된다.



9

[잔존길이 8.9cm, 두께 0.6~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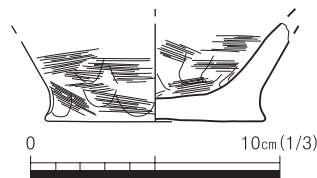
10. 赤色磨研土器 底部片으로 外面은 적색, 内面은 암적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器壁을 접한 후 저부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内面은 얇게 점토를 덧대어 보강하였으며, 胴體 外面에는 마연하여 광택을 냈다. 器內·外面에는 胴體部와 底部의 접합 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과 板木調整痕이 관찰된다.



10

[잔존높이 3.4cm, 저경 6.9cm, 두께 0.5~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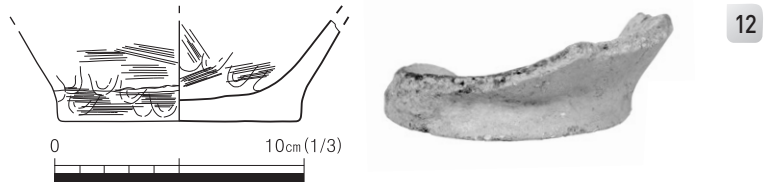
11.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内外面 모두 황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한 후 저부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内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内·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과 板木調整痕이 관찰된다.



11

[잔존높이 3.9cm, 저경 8.6cm, 두께 0.7~1.3cm]

12.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外面은 황색, 內面은 흑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저부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內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內·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이 관찰되며, 外面에는 板木調整痕도 관찰된다.



[잔존높이 4.0cm, 추정저경 9.9cm, 두께 0.6~1.2cm]

13.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外面은 황적색, 內面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저부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內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內·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이 관찰되며, 外面에는 板木調整痕도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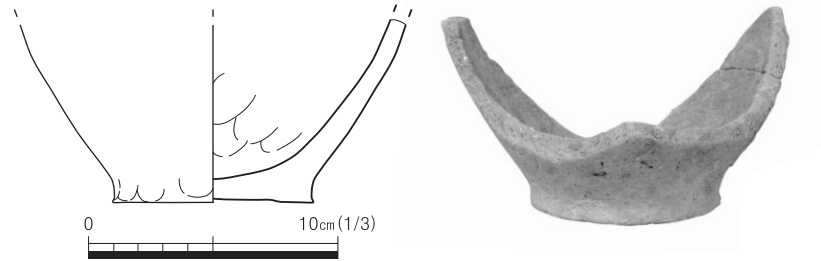
[잔존높이 3.0cm, 저경 7.3cm, 두께 0.5~1.3cm]

14.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內外面 모두 적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內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內·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1cm, 저경 6.4cm, 두께 0.5~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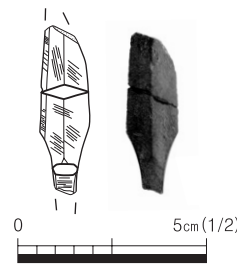
15.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内外面 모두 적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합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內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內·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15

[잔존높이 7.0cm, 저경 8.0cm, 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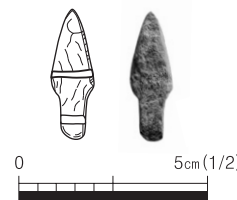
16. 一段莖式石鏃片으로 鏃身部 끝이 결실되었다. 材質은 회청색의 세일이다. 鏃身部는 단면이 마름모형이며, 斜線方向으로 마연하였다. 莖部의 단면은 장방형이며, 鏃身과 莖部가 부드럽게 연결된다.



16

[잔존길이 4.4cm, 너비 0.6~1.3cm, 두께 0.4cm]

17. 一段莖式石鏃으로 材質은 회청색의 세일이다. 鏃身部는 단면이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斜線方向으로 마연하였다. 莖部의 단면은 장방형이며, 鏃身과 莖部가 부드럽게 연결된다.



17

[길이 3.4cm, 너비 0.7~1.1cm, 두께 0.2cm]

## (2) 2號 住居址

### ① 遺構

2號 住居址는 시굴조사 트렌치 설치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收拾調査를 통해 1號 住居址 주변에 대한 확장 제토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시굴조사시의 18번과 19번 트렌치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1號 住居址와 같은 해발고도 약 87m의 구릉지 사면부에 위치하며, 거의 준평탄지 상에 조성되었다. 서쪽 동일 등고선 상에 약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1號 住居址가 위치하고 있다.

住居址는 1號 住居址와 같은 사질계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圓形이며, 벽면은 대체로 수직에 가깝게 굴토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약간 경사진 양상도 관찰된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직경 466cm, 잔존깊이 59cm이며, 바닥면의 면적은 14.63㎡이다.

조사는 ‘十’자 형태의 토층독을 남기고 내부 퇴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로 하강하면서 수직 및 수평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바닥면은 1號 住居址와 같은 자갈과 모래가 혼합된 역석층을 기반으로 한다. 1號 住居址에 비하여 직경은 466cm 정도로 작은 편이나 造成 位置와 내부 퇴적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내부 바닥면부터 木炭이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층, 황갈색 사질점토층, 암갈색 사질점토층, 표토층의 순서로 퇴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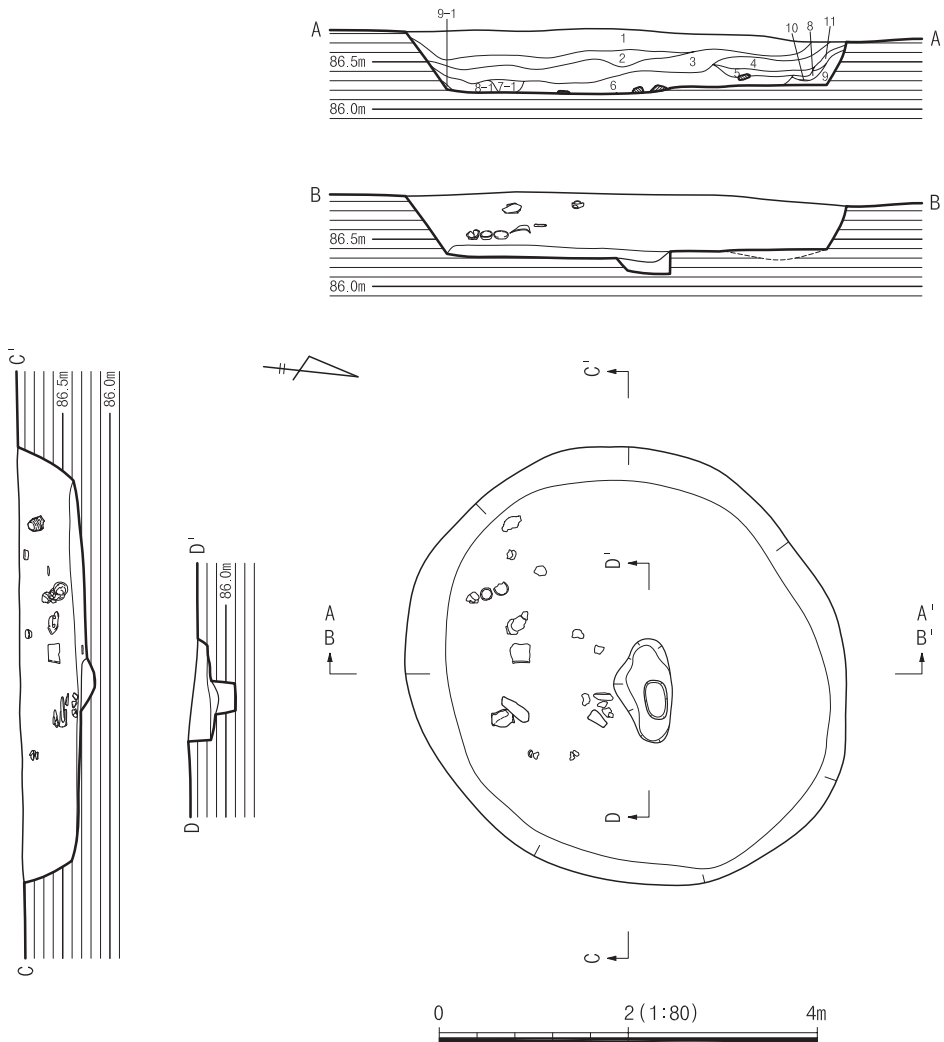


【사진 4】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①조사완료, ②유물출토, ③내부시설, ④⑤유물출토 세부)

内部施設은 바다 중앙부에서 장축 길이 112cm, 깊이 10cm 정도의 橢圓形豎穴이 확인되었다. 橢圓形豎穴 내부 중앙에는 1號 住居址와 달리 직경 32cm, 깊이 26cm 정도의 주공형태를 띤 小形豎穴이 확인되었다. 이 외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遺物은 石斧와 砥石, 鉢形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들은 1號 住居址와 달리 대체로 完形 또는 半破된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바닥면보다는 상부의 흑갈색 사질 점토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이에 비해 石器類는 바닥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 |                                    |                 |
|------------------------------------|-----------------|
| 1. 회색+암갈색 사질점토                     | 7. 황갈색 사질점토     |
| 2. 회색+암갈색 사질점토(1보다 밝음)             | 7-1. 회색+암갈색 점질토 |
| 3.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 8. 적갈색+황갈색 사질점토 |
| 4. 황갈색 사질점토+회색색 목탄재 포함             | 8-1. 명황갈색 점질토   |
| 5. 회색+암황갈색 사질점토(목탄 포함)             | 9. 적갈색+황갈색 사질점토 |
| 6. 회색+적갈색 사질점토<br>(적황색 점질토 알갱이 포함) | 9-1. 황갈색 점질토    |
|                                    | 10. 적갈색 사질점토    |



【도면 16】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및 토층도

② 遺物

18. 無文土器 壺形土器이다. 外面은 흑적색, 內面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底部쪽에 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外面은 대체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다. 器形은 松菊里形 外反口緣土器로 胴最大徑은 동체 중앙에 위치한다. 토기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部를 접합한 후 器內面은 얇게, 外面은 두껍게 점토로 보강하였다. 특히 접합부위의 外面 보강시 底板 바닥면 전체를 점토로 보강한 후, 指頭調整과 板木調整하였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내만하다가 頸部에서 외반하여 올라간다. 外面은 동체 중상단부와 구연부에 탄착흔이 관찰되며, 內面은 동체 하단부에 탄착흔이 관찰된다.

器面 調整痕은 内外面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内外面의 경우 전반적으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18

[높이 20.4cm, 구경 12.0cm, 저경 7.3cm, 두께 0.4~1.8cm]

19. 無文土器 壺形土器로 口緣部 일부와 胴體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外面은 흑색+ 암적색, 內面은 암적색을 띠고 있으며, 外面의 한쪽에는 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外面은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다. 기존의 松菊里形 外反口緣土器로 胴最大徑은 동체 중앙에 위치한다. 토기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部를 접합한 후 器內面은 얇게, 外面은 두껍게 점토로 보강하였다. 점토 보강 방식시 접합부위 外面은 底板 바닥면 전체를 점토로 보강한 후, 指頭調整과 板木調整을 하였다. 口緣部는 胴體部에서 내만하다가 頸部에서 외반하여 올라간다. 器面 調整痕은 内外面에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높이 17.1cm, 구경 11.7cm, 저경 7.5cm, 두께 0.4~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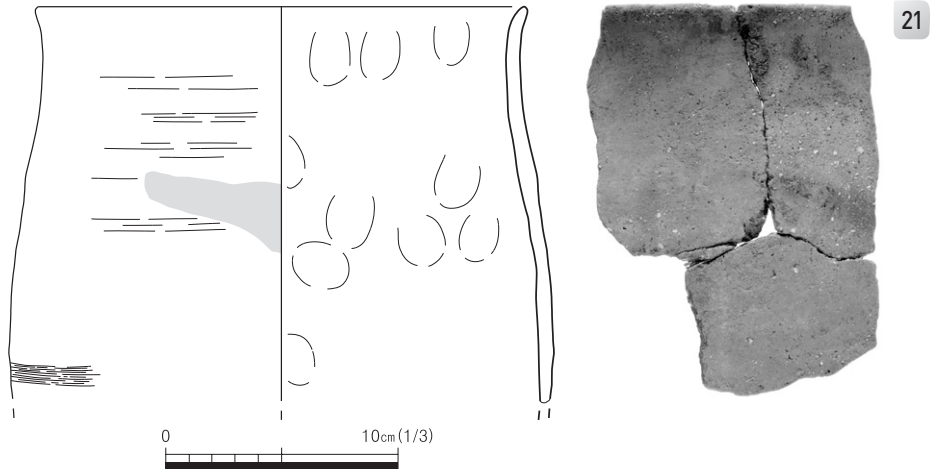
20. 無文土器 壺形土器로 底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外面은 암갈색과 암적색을 띠고 있으며, 한쪽에 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内面은 흑색과 황갈색을 띤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松菊里形 外反口緣土器로 胴最大徑은 동체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토기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部를 접합한 후 器内面은 얇게 外面은 두껍게 점토로 보강하였다. 접합부위 外面의 보강시 底板 바닥면 전체를 점토로 보강한 후, 指頭調整과 板木調整을 하였다. 口緣은 胴體部에서 내만하여 올라가다가 頸部에서 외반하여 올라간다. 器面 調整痕은 内外面에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높이 19.4cm, 구경 13.2cm, 저경 8.6cm, 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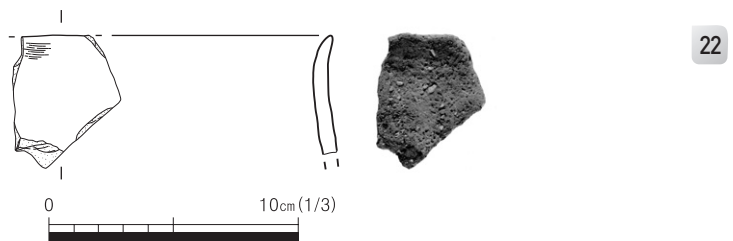
21.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적색을 띠고 있으며, 하단부에 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內面은 적색을 띠며, 內外面 모두 박리가 심한 편이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은 胴體部에서 수직에 가까운 내만하면서 올라가다가 頸部에서 외반한다. 박리가 심하지 않은 外面에서 板木調整痕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16.7cm, 추정구경 10.5cm, 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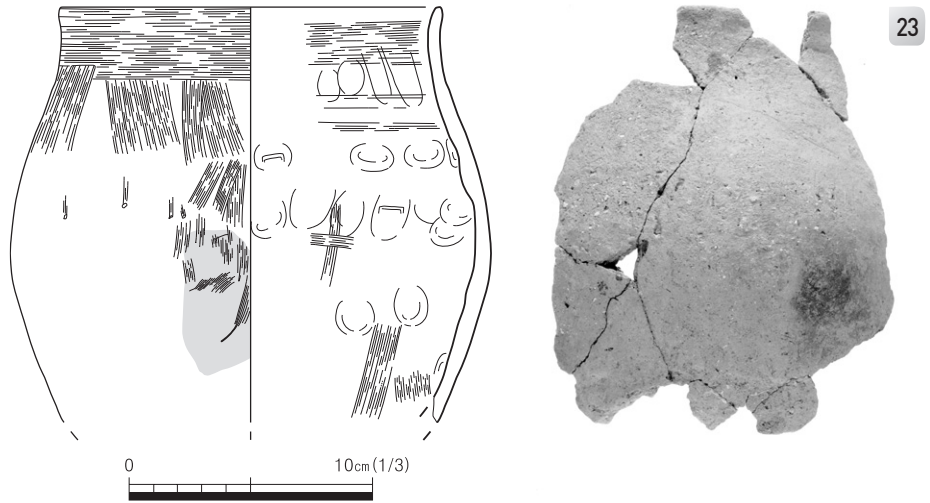
22.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外面은 회색, 內面은 적색을 띠고 있으며, 內外面 모두 박리가 심한 편이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은 胴體部에서 수직에 가까운 내만하면서 올라가다가 頸部에서 외반한다. 박리가 심하지 않은 外面에서 板木調整痕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4.7cm, 두께 0.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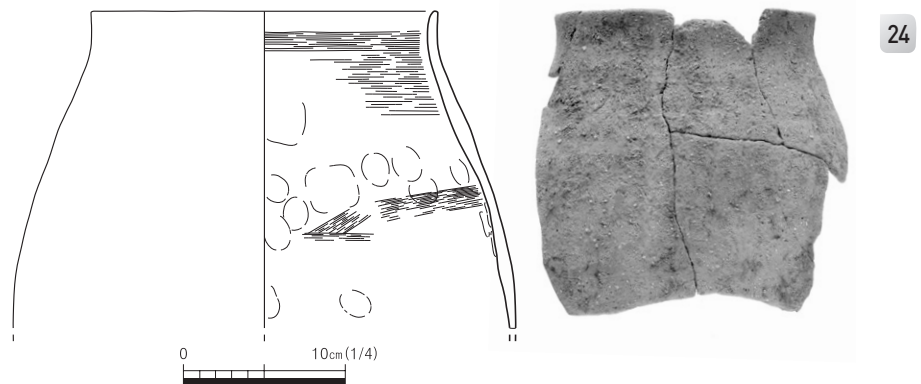
23. 無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外面은 적색을 띠고 있으며, 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內面은 암적색을 띠며, 內外面 모두 박리가 이루어져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은 胴體部에서 내만하면서 올라가다가 頸部에서 외반한다. 外面에서 板木調整痕, 內面에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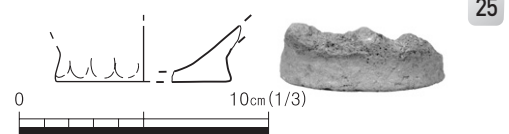
[잔존길이 16.7cm, 추정구경 15.4cm, 두께 0.6cm]

24.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外面은 적색, 內面은 황적색을 띠고 있다. 內外面 모두 박리가 심하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口緣은 胴體部에서 내만하다가 頸部에서 직립한다. 內面에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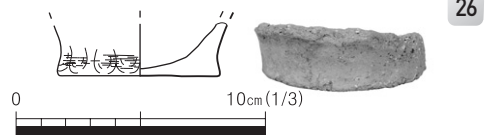
[잔존길이 19.5cm, 추정구경 21.2cm, 두께 0.7cm]

25.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內外面 모두 적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內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內·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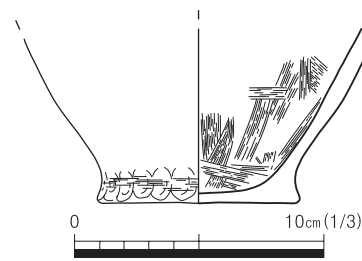
[잔존높이 2.2cm, 추정저경 7cm, 두께 0.4~0.5cm]

26.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内外面 모두 황적색을 띠고 있으며, 内面은 박리가 심한 편이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内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内·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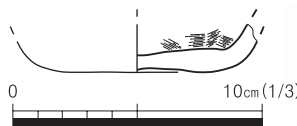
[잔존높이 2cm, 저경 6.4cm, 두께 0.3~0.8cm]

27.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内外面 모두 암적색을 띠고 있으며, 内面은 底部에 黑斑이 형성되어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内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内·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6.9cm, 저경 8.0cm, 두께 0.4~0.8cm]

28.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内外面 모두 암황적색을 띠고 있다. 外面은 박리가 심하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합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内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内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9cm, 추정저경 7.4cm, 두께 0.6~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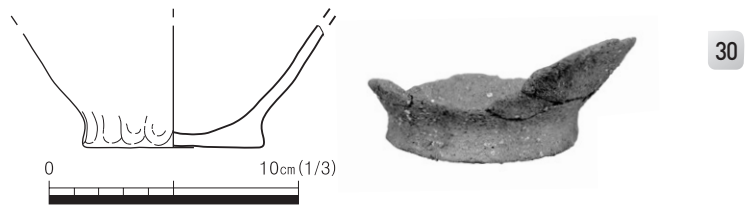
29.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内外面 모두 암황적색을 띠고 있다. 外面은 박리가 심하

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內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內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板木調整痕과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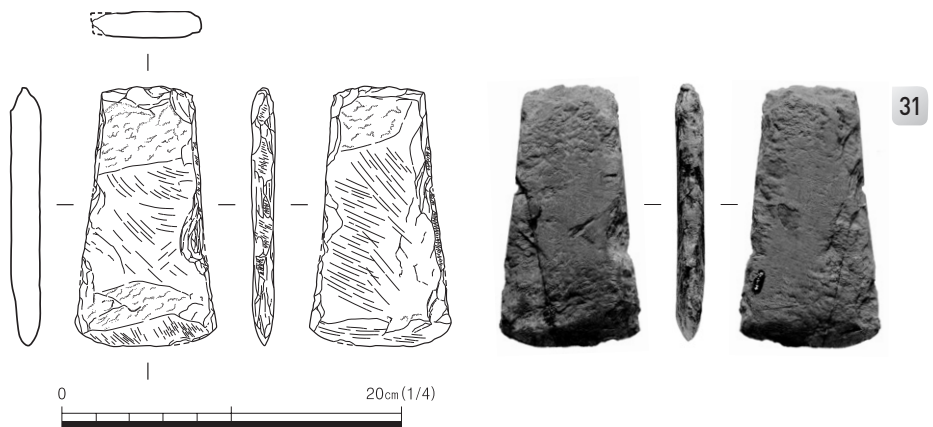
[잔존높이 3.0cm, 추정저경 7.3cm, 두께 0.6~1.6cm]

30.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外面은 암적색, 內面은 황적색+회색을 띠고 있다. 內外면 모두 박리가 심하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微砂粒의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底部의 성형은 底板 위에 胴體를 접한 후 底部 바닥면을 제외한 外側面은 두껍게, 內面은 얇게 점토로 덧대어 보강하였다. 內外面에는 胴體와 底部의 접합부분을 중심으로 指頭壓痕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8cm, 추정저경 7.0cm, 두께 0.4~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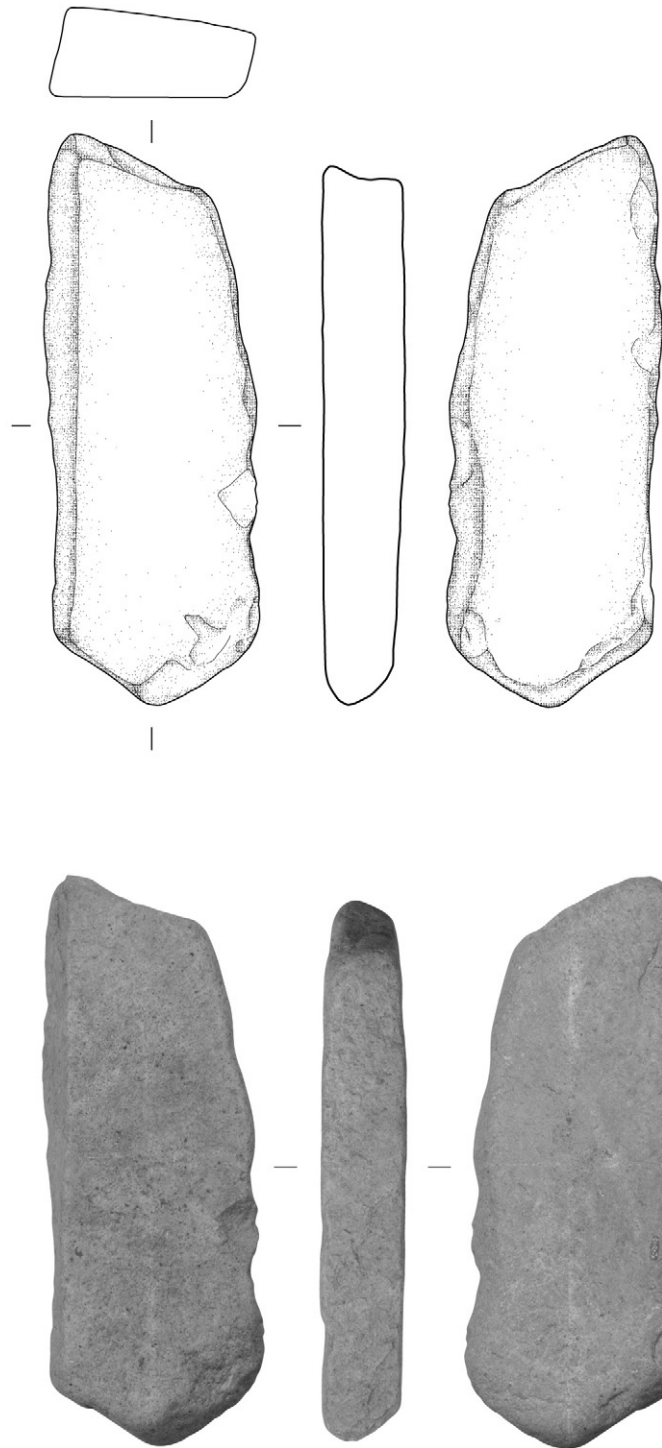
31. 扁平偏刃石斧로 材質은 흑색 세일이다. 身部보다 刃部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으며, 身部·刃部 모두 부분적으로 깨져 있다. 身部는 횡방향, 刃部는 한쪽은 횡방향, 다른 한쪽은 사선방향으로 마연하였다.



[길이 15.3cm, 폭 5.3~8.2cm, 두께 0.9~1.7cm]

32. 研石으로 평면은 측면이 불규칙한 세장방형을 띤다. 한쪽 면은 사용으로 인해 마연되었으며, 나머지는 자연면으로 남아 있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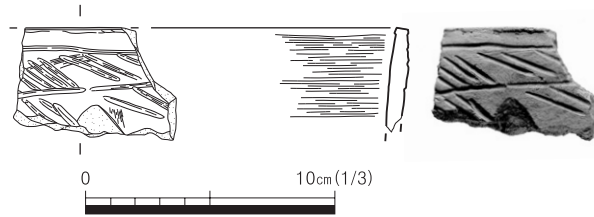


0 20cm (1/4)

[길이 32.5cm, 폭 10.6~10.9cm, 두께 3.7~4.7cm]

## 지표수습

33. 新石器時代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内外面 모두 명적색을 띠고다. 胎土는 微砂粒이 포함된 점질토로서 아주 정선되었다. 口緣은 胴體部에서 직립해 있으며, 口脣部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문양은 口緣 바로 아래부터 시문하였는데, 우선 사선방향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사선문을 압인한 후 횡방향으로 횡선을 押印하여 시문하였다.



33

[잔존길이 4.4cm, 두께 0.5~0.7cm]

## V. 調査成果

금번 試掘調査는 韓國鐵道施設公團에서 시행하는 京釜高速鐵道 제6-3공구 노반시설 및 기타공사 계획 중 大田都心區間(2次)에 대한 시굴조사이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건설공사 계획에 따라 2005년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에 의해 전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금번 시굴조사지역 일원에서 靑銅器時代 無文土器片과 石器 등이 지표 관찰되어 유물산포범위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文化財廳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은 후 본 연구소에 시굴조사를 의뢰해 음에 따라 2009년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굴조사 및 유구조사를 실시하여 靑銅器時代 2기를 확인하였다.

시굴조사지역의 면적은 길이 410m, 면적 12,582㎡이고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시굴조사 기간동안 수습조사가 이루어진 면적은 297.74㎡이다. 모두 평면 圓形의 소위 '松菊里形 住居址'로서, 내부시설로는 중앙부의 타원형 구덩이 외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관암동 물방아골유적의 지리적 상황을 살펴본 후, 주변유적과 관련하여 본 유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板岩洞一圓의 地理的 背景

대전광역시의 歷史地理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卷36?37 地理의 기록에서 三國時代 당시 百濟의 雨述郡(회덕), 眞峴縣(진잠), 奴斯只縣(유성), 所比浦縣(덕진)이 대전분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가,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와 比豐郡(회덕), 儒城縣(유성), 赤烏縣(덕진), 鎭嶺縣(진잠)으로 되었다.

高麗時代에 들어와서 대전일원에는 公州牧, 懷德縣, 儒城縣, 忠順縣, 鎭岑縣 등이 위치해 있다가,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公州牧, 懷德縣, 鎭岑縣이 위치해 있었다. 조선시대 당시 공주목의 일부로서 川內面과 山內面 중 천내면은 현재의 儒城區로, 산내면은 中區로 개편되었고 회덕현과 진잠현은 각각 大德區?東區, 그리고 西區로 개편되었다. 그 중 금번 조사지역인 板岩洞은 대전시의 남동지역으로서 東區에 해당하며, 조선시대 당시 外南面에 해당한다.

한편, '板岩'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후엽까지도 없었던 지명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上新里, 山所里, 楮田里 및 東面의 九丁里 일부를 병합하여 현 관암

동에 해당하는 板岩里라 했다<sup>7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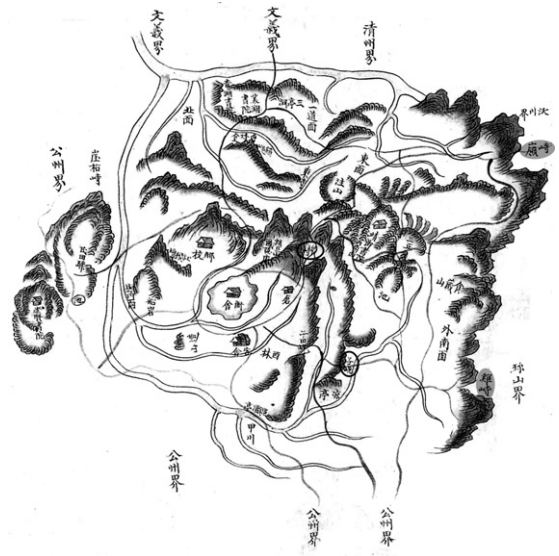
그리고 ‘大田’이라는 지명은《新增東國輿地勝覽》제17권 공주목에서 처음 보인다. 즉, “大田川 在儒城縣東二十五里 源出全羅道錦山郡之界”라 하여 대전천은 유성현 동쪽 25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근원은 금산군 경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大田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전’이라는 지명은 마을 단위의 큰 지명을 일컫던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자연촌을 일컫던 것으로 보인다. 《輿地圖書》상에는 縣內面을 비롯하여 총 7개 面, 20개 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大田’이라는 마을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林園十六志》倪圭志의 八域場市에서 “設大田場 在東七十里山內面 二七一”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懷德縣의 外南面, 內南面, 그리고 西面に 인접해 있던 公州牧 山內面에 ‘대전’이라는 지명이 존재했었고 이에 따라 현 大田川 주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고종 32년 지방관제 개편 당시 회덕군 산내면 ‘大田里’라 하여 처음으로 ‘대전’이 행정지명상 확인되고 있다. 이후 근대지형도에서는 ‘大田面’이 현재의 신인동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확인된다.

관암동이 위치하는 조선시대 외남면에는 注洞里, 草洞里, 興農里 등 세 개의 큰 마을이 존재했다. 興農里는 현 가양동 일원으로서 民戶 134戶에 남녀 성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注洞里는 현 비룡동 일원으로서 民戶 144戶에 역시 비슷한 남녀성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현 관암동과 인접한 삼정동 일원에 해당하는 草洞里의 경우 94民戶로 다른 두 마을에 비해 민호수나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상당히 적은 편으로서 행정구역상의 제약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居住圈域으로서 두 마을에 비해서는 불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의 동부지역에서의 交通地理的 상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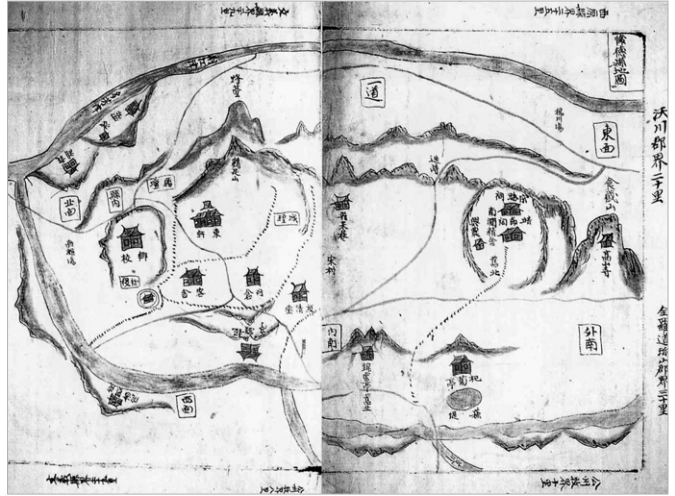
주요 교통로는 ①懷德-質峙-注山-嶺峙-沃川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②懷德-子田峴-子峴-雞峙-遠



도면 A. 《海東地圖》상의 懷德縣

78) 한글학회 1988, 『한국 지명 총람4-충남편·상』.

山郷-珍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그리고 ③懷德-子田峴-子峴-食藏山-嶺峙-沃川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요약될 수 있다<sup>79)</sup>. ①과 ②는 산이나 하천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반면, ③의 경우 食藏山 서편의 大田川과 그 支川 谷



도면 B. 《忠清道邑誌》의 懷德縣

部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본 조사지역 일원을 통과하고 있다. 즉, 현 판암동에서 북쪽으로 고개를 넘어 주산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최적 교통로로서의 기능은 없다고 판단된다(도면 A). 이러한 점은 《忠清道邑誌》懷德縣의 고지도에서도 관찰되는데, 회덕-옥천이나 회덕-진산간 교통로는 직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면서, 지도에 표시되고 있지만, 판암동을 거치는 회덕-옥천간 교통로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도면 B).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판암동 일원이 현재와 같이 비교적 주목을 받는 시점은 근래 들어와서일 뿐, 조선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板岩洞 물방아골의 靑銅器時代 住居址

대전 일원에서 조사된 靑銅器時代 유적 중 住居遺蹟이 확인된 곳으로는 아래 표 A와 같다<sup>80)</sup>.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갑천이나 유등천과 같은 비교적 큰 하천 주변

79) 李販燮 2007, 『古代 山城의 分布와 交通路』,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80) 표 A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大田 官坪洞遺蹟』. ②中央文化財研究院 2007, 『大田 龍山洞 舊石器遺蹟』. ③忠南大學校博物館 2002, 『龍山洞』. ④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大田 龍山·塔立洞遺蹟』. ⑤忠清文化財研究院 2004, 『대전 자운동·추목동유적』. ⑥韓南大學校中央博物館 2003, 『大田 老隱洞遺蹟』. ⑦韓南大學校博物館 1997, 『大田 九城洞遺蹟』. ⑧忠南大學校博物館 1995, 『屯山』. ⑨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大田 秋洞(하추·성외)遺蹟』. ⑩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大田 伏龍洞遺蹟』. ⑪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2, 『大井洞遺蹟』. ⑫中央文化財研究院 2007, 『大田 槐亭高等學校 新築敷地內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⑬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大田 加午洞遺蹟』. ⑭中央文化財研究院 2009, 『大田 龍溪洞遺蹟』, 현장설명회자료집. ⑮이형원 1998, 「구순각목토기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百濟研究』 28. ⑯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忠南大學校博物館 2006, 『弓洞』. ⑰·⑱·⑲大田廣域市·忠南大學校博物館·韓南大學校中央博物館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大田廣域市』.



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유적 앞으로 넓은 평야가 위치해 있어 주변 경관이 좋은 편이며, 이외 유적 역시 주요 하천의 支流들에 위치해 있으면서, 中·小規模의 평야지대를 주변 경관으로 두고 있다. 물방아골유적의 경우 大田川의 支川이 위치한 食藏山 북쪽 완사면에 위치해 있다. 다른 유적들에 비해 유적 입지면에서 이렇다 할 평야지대를 끼고 있지 않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곡저부를 따라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교통 시설 등이 일찍이 들어서면서 원 지형을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지형상에서도 곡저를 따라 평야가 위치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대정동유적을 살펴볼 때, 원지형상에서 소규모의 평야가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금번 조사가 된 板岩洞 물방아골遺蹟 주변으로는 細川洞·三丁洞 遺物散布地가 동일 한계곡부의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고<sup>81)</sup>,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大田 加午洞遺蹟이 있다.

물방아골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모두 圓形住居址로서 단순 굴광 후 주거지 내부 중앙에는 타원형구덩이와 한 쌍의 柱孔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주요 출토유물로서는 구연부 주변에서 짧게 외반된 外反口緣土器 및 外反口緣口脣刻目文土器를 비롯하여 扁平偏刃石斧, 砥石, 一段莖式石鏃 등이 있다. 外反口緣土器類의 경우 색조는 대체로 적갈색을 띠면서 태토는 微沙粒의 점질토를 사용하였지만, 정선된 편이다. 최대 동체경은 중앙부에 위치하고 동체부 표면에는 판목조정한 흔적들이 조밀하게 잘 남아 있는 편이며, 1호 주거지의 外反口緣口脣刻目文土器 구연부편 역시 이러한 양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구 및 유물양상을 대전시 관내의 다른 유적과 비교해 볼 경우, 상기 표에서와 같이 官坪洞<sup>82)</sup>, 龍山洞<sup>83)</sup>, 加午洞<sup>84)</sup> 등 많은 편으로서, 그 중에서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外反口緣土器類는 관내 남서부에 위치한 大井洞遺蹟<sup>85)</sup>의 I-1지구 KC00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器形이나 크기, 器面을 정리한 상태 등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外反口緣口脣刻目文土器의 경우 대전 관내에서 비교할 만한 유적으로는 분지내 중북부의 갑천변에 위치한 九城洞遺蹟<sup>86)</sup>이 유일하다. 구성동유적 중 특히 C지구 1·3·4호 원형주거지는 화재 주거지로서 출토된 외반구연토기들은 표면에 판목조정한 흔적들이 완연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써 보존

81) 大田廣域市·忠南大學校博物館·韓南大學校中央博物館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 大田廣域市』.

82) 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大田 官坪洞遺蹟』.

83) 中央文化財研究院 2007, 『大田 龍山洞 舊石器遺蹟』.

84) 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大田 加午洞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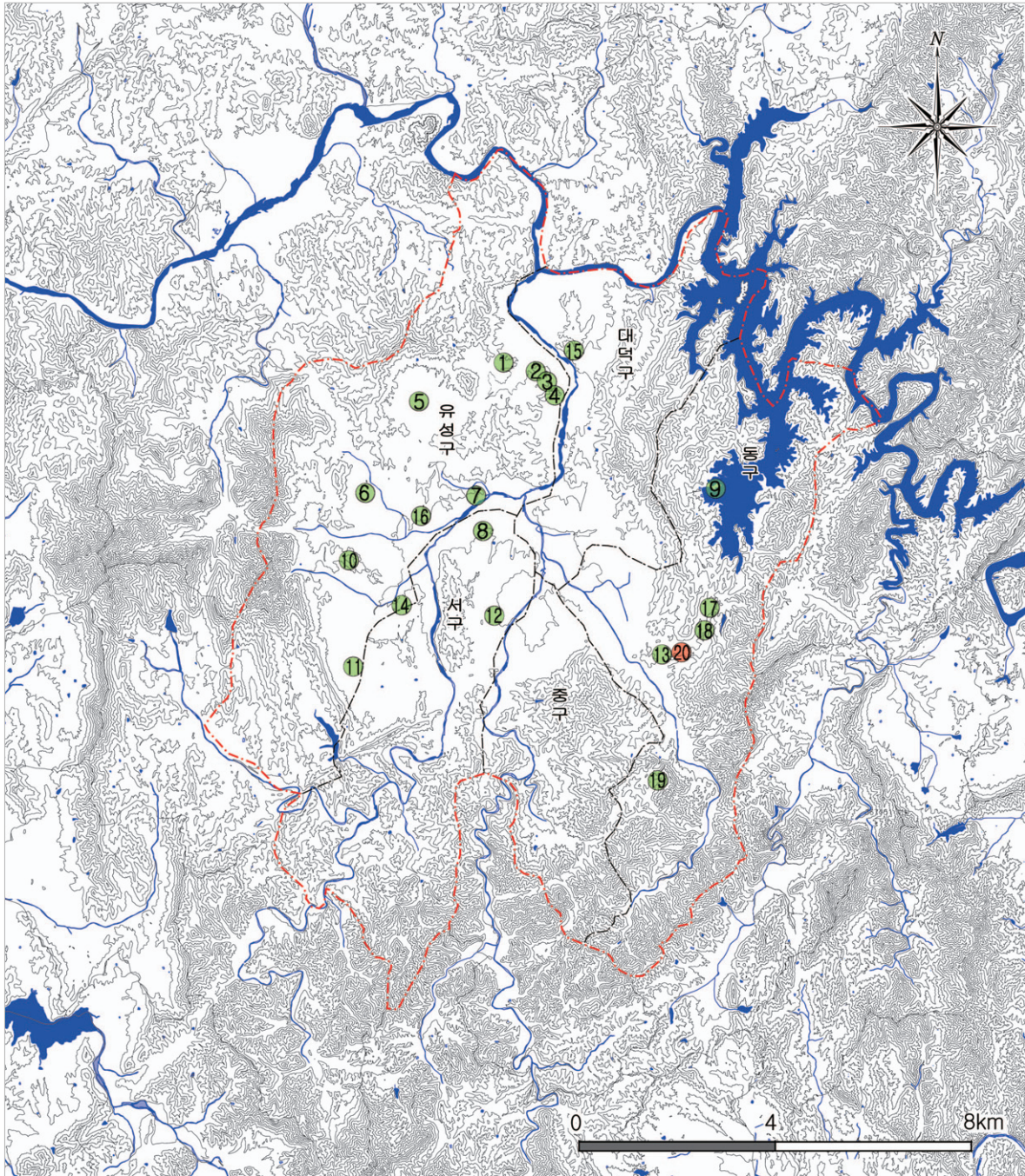
85)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2, 『大井洞遺蹟』.

86) 韓南大學校博物館 1997, 『大田 九城洞遺蹟』.

【표 A】 대전광역시 일원의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번호는 도면 C와 동일함

번호	유적명	주거지	주요 출토 토기	연대관
1	官坪洞遺蹟	장방형 11기	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문, 단사선문, 이중구연, 외반구연, 구순각목문	전기
		원형 2기	외반구연	후기
2	龍山洞 舊石器遺蹟	장방형 1기	이중구연단사선문	전기
3	龍山洞遺蹟	장방형 2기	이중구연단사선문, 적색마연, 이중구연구순각목문	기원전 13세기 전반 ~10세기 전반
4	龍山·塔立洞遺蹟	(장)방형 18기	구순각목문, 적색마연, 이중구연단사선문, 외반구연, 거치문, 횡침선거치문, 절상돌대	기원전 12~10세기
		원형 5기	무문	기원전 8~6세기
5	自雲洞遺蹟	방형 1기	외반구연	-
		원형 4기	외반구연	기원전 6~5세기
6	老隱洞遺蹟	원형 3기	외반구연	기원전 8~6세기
7	九城洞遺蹟	방형 2기	외반구연, 적색마연	전기
		원형 8기	외반구연구순각목문, 외반구연, 적색마연	기원전 6~4세기
8	屯山洞遺蹟	장방형 3기	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기원전 10~9세기
9	秋洞遺蹟	원형 1기	외반구연	기원전 7세기
10	伏龍洞遺蹟	장방형 2기	발형, 주구, 외반구연, 플라스크형	전기
		원형 1기	무문	후기
11	大井洞遺蹟	원형 7기	외반구연, 적색마연, 무문	기원전 6~5세기
12	槐亭洞遺蹟	장방형 1기	무문	전기
13	加午洞遺蹟	장방형 4기	줄문, 무문, 외반구연구순각목문, 적색마연	기원전 11~9세기
		원형 4기	외반구연, 주구, 흑색마연, 점토대	후기 늦은 시점
14	龍溪洞遺蹟	장방형 6기	발형, 플라스크형	전기
		원형 1기	-	후기
15	新垆洞遺蹟	장방형 5기	공열, 점열, 구순각목, 적색마연, 이중구연단사선문	전기
16	弓洞遺蹟	장방형 2기	이중구연단사선문, 적색마연	전기
17	細川洞 先史遺蹟	산포지	무문	-
18	三丁洞 先史遺蹟	산포지	무문	-
19	所好洞 토소리 散布地	산포지	무문	-
20	板岩洞 물방아골遺蹟	원형 2기	외반구연구순각목, 외반구연, 적색마연	후기



도면 C. 대전광역시 일원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

상태가 양호하다. 주거지 입지상에서도 갑천 변을 바라보는 斜面이 아니라, 북쪽의 산록완사면 상의 微谷部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판암동 물방아골유적의 영위시점이 구성동유적에 비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다. 상기와 같은 유구나 유물 양상 그리고 주변유적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판암동 물방아골유적의 연대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기원전 6~4세기 무렵 정도로 판단된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전 분지내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전기~후기의 유적들은 동일한 유적내에서 인접한 채 동일 입지로 확인이 되기도 하며, 독립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지천과 평야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지상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급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전 분지 내에서 청동기시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왔을 것으로 판단케 한다. 또한 加午洞 遺蹟에서 확인된 圓形 住居址내에서는 外反口緣土器, 注口附加土器, 黑色磨研土器, 粘土帶土器 등 靑銅器時代 後期 중에서 늦은 시점으로서 初期鐵器文化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財)嘉耕考古學研究所 文化遺蹟 調查報告 第2輯

京釜高速鐵道 大田都心(2次) 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試掘) 調查

## 大田 板岩洞 물방아골遺蹟

2011年 8月 日 印刷

2011年 8月 日 發行

編輯\_ (財)嘉耕考古學研究所 • (331-960)忠清南道 天安市 西北區 斗井洞 950 • TEL\_ (041)621-8772 / FAX\_ (041)621-8773

發行\_ (財)嘉耕考古學研究所 • 印刷\_ 계룡문화사 • TEL\_ (042)628-0199 / FAX\_ (042)826-0603

